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
해양유산연구소|궁능유적본부|국가유산진흥원|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일시 2024년10월10일(목)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진흥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최용천 청장과 소속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국가유산청 등 8개 기관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국가유산청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재화적 의미가 강했던 문화재라는 명칭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제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등은 국가유산이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면서 더 나아가 다양한 미래가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들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용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종료 후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고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은 본인의 보충질의시간 5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되 답변시간은 제외하고 질의시간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증인 신문시간 5분에 더하여 추가질의 3분을 미리 써서 8분을 질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열여섯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최응천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응천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강경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임종덕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정용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 김성배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최영창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김정희
 사무총장 곽창용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으로부터는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밖의 소속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응천 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도움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은 올해 국가유산청으로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전반적 쇄신과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 등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국가유산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훈 차장입니다.

황권순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영아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이종희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여성희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입니다.

윤순호 무형유산국장입니다.

박정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입니다.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입니다.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입니다.

김성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입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입니다.

최영창 국가유산진흥원장입니다.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입니다.

곽창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 업무 추진 여건 및 대응 방향 등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국가유산청의 비전은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입니다.

이에 따른 네 가지 전략과제는 첫 번째 국가유산 유형별 맞춤형 보존·전승 강화, 두 번째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 번째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 확대,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입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국가유산 유형별 맞춤형 보존·전승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송광사 영상회상도 및 팔상도 국보 지정 등 지정·등록을 확대하고, 백제·신라·가야 등 7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중요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새로 개관하였으며, 기와·한지 등 전통재료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통조경 관리기준 마련, 민간에서 보관 중인 화석이나 암석의 전수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미래로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심사방식을 개방적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전승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멸위기에 처한 취약종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수 이수자 장려금의 지급 등 젊은 전승자들에게 보다 많은 활동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중점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풍수해·생물피해 등 유형별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삶과 조화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 간소화를 위해 올해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및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방문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활용모델도 신규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보편적 향유환경 조성에도 특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예비부부와 미혼모를 위한 전통혼례 제공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 우리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가유산 지킴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부터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국가와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가치 확대입니다.

먼저 미래 국가유산의 포괄적·선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및 목록화를 잘 마무리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지자체의 문화유산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기준 마련 및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5월 공모를 실시하였고 1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잘 보존·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관련 사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유산 산업조사를 실시하여 업종별 산업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 제정도 준비 중입니다.

국가유산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도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역사문화도시를 지역명소로 조성하고 매력적인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마지막 과제인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확대 및 보존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를 다음 등재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차질 없이 등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

올해는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협력국도 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용 기반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9월 프랑스 파리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유럽 소재 국가유산 조사 및 환수 협력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 등 K-공유유산의 현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해외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해외홍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한국 유산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 유산 그대로 쓰기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격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경로로 유통·홍보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새로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고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꼼꼼히 챙기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강유정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제척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미 제출받았던 자료와 중복이 되기에 좀 비교 검증해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문화재 대상으로, 동일한 신청 사유예요. 그러니까 동일 건입니다. 그런데 제척 위원명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PPT 올렸는데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위원명뿐만 아니라 두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2020년 제척 건수는 77건, 다른 자료에서는 68건입니다. 국감 앞두고 여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 당연히 물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수도 다르고요 위원명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십 개 자료를 저희는 받아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 보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나머지 자료들에 대한 신뢰도도 무척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자료 요구 일단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청장께서 이 발언이 끝나면 저희 직원한테 자료 받아가서 확인하고 정확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유산청 자료제출과 결재 체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다 다릅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20년보다는 아무래도 근래 자료가 더 확실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하신 자료는 오해가 없도록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강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전 중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그제 국정감사 때 제가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자료제출과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문제는 아리랑TV 사장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가 일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문화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리랑TV 사장 청탁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 증인 채택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더불어 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강훈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랑TV 사장의 허위 경력 제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문투성인 아리랑TV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 강훈 정책홍보비서관의 내용들이 우리 방에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증인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 공히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증인 신청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진행 중에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야 사이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의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을 하고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채택을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자료 요구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이 두 곳 시설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광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시설로 보고 있는 이 아시오 광산 및 구로베 댐의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의 시작이 포함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또 거기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면서 자료를 내야 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충격적이고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강제동원과 관련한 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유와 위 시설에 대한 설명자료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그리고 아시오 광산 등이 후보자산에 들어간 시기에 대한 국유청의 답변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국회의원 박수현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국회에 대한 태도를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볼 줄 몰라서 자료 요구를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위원장님 정말 강력하게 경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은 좀 드릴 테니까 종합감사 전에 본 위원의 이 두 자료 지적인 것에 대해서 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보시기에도 좀 황당하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보다 너무 더 적게 나간 것 같아서……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그 경위를 파악해서 박수현 위원님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양문석 위원 제가 준비해 뒀던 것을 깜빡 한 개 빼먹고 했는데……

그제 제가 이야기했던 KOK 코인 사기 사건 조선일보 공범과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조선 대표이사 증인 채택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디지털조선 대표이사도 증인 채택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결론이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양문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같은 필요가 있으니까요 꼭 줘……

○위원장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 지난 7일 날 저희 여야 합의로 KTV의 그 날, 작년 10월 31일에 있었던 김건희 황제관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 그 행사를 연출했던 조대익 PD를 저희가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5일이지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7일 날 요청했는데 8일 날 불출석사유서가 왔습니다.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요.

이분이 저희 의원실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실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무관중 관람이었다고 허위 자료를 계속 보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꼭 증인 신문을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종감인 24일 날도 증인 채택은 되어 있지만 KTV 국감인 15일 날 꼭 KTV 사장 그리고 기타의 증인들과 함께 증언을 해 줘야 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개인 사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KTV에 출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은 하면서 국감에는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겠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주시고, 혹시 이분이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고 하면 동행명령장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유산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국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9월 27일 날 11시에 합니다. 금요일이지요. 그랬더니 근무일로 치면 다음 날, 월요일 날 의원실에…… 저희가 어떤 자료 요청을 했냐면 국가유산청, 지자체가 발주하는 문화재 수리 사업에 특정한 민간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민간업체 대표가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보좌관에게 왜 자기를 자료 요청을 했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의원실에서 했겠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기현 의원실에서 찍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유산청이 갖고 있는 전문성 인정합니다.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6년 전인 18년에 유산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공무원 출신이에요. 이분이 설립한 민간 문화재 수리업체인데 아무리 OB들에 대한 예우를 공무원들이 해 주신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질의한 자료는 안 오는데 질의하자마자 근무일로 따지면 다음 날 그분이 직접 의원실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유산청에서 심각하게 봐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세로는 저희가, 아무리 유산청이 국가기관 중에 특수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은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리고 소속기관장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그게 조사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이었고 아마 위원 요구 자료에 위원님의 성함이 올라간 걸 보고 거기에 간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는 저희가 국가유산수리협회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협조 요청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들어간 건 정말 저희가 봤을 때도 잘못된 사항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 이쪽 해당 업체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의원에게 항의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봐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방금 이기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증인으로 부른 안영배 전 사장께서 관광공사 내부의 어떤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사안들이 들통이 나면서 실제 고발 추진까지 됐었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청장님께서도 본인께서 보고를 받고 사전에 몰랐던 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유산청 내부에서 엄격하게 추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신 부분이 감사도 진행하기 전에 이게 밖으로 누설됐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에 임하는 여당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장들과 많은 기관 소속 인원들은 이곳에 와서 위원들과 다투거나 아니면 기 싸움을 하려고 오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한 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살피고자 하는 이 자리에 좀 더 엄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그냥 알아서 조치하라고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하고 단속하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도 위원장으로서 배현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일과 관련해서 경과 그리고 추후의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시 한번 엄중히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전재수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청장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딱 갖추셔야겠네요. 지금 이기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뭐인지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보스턴 미술관 사리기입니다.

○민형배 위원 사리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기입니다.

○민형배 위원 사리기?

○이기현 위원 사리구.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구와 사리기는 같은 용어입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환수 대상 문화재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환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민형배 위원 우리나라 문화재가 지금 해외 반출이 24만 점이라는데 환수가 5.1%예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만큼 환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고 오랫동안, 그게 어떻게 반출됐는지 입증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민형배 위원 올해 4월에 저 중에서……

그 사진 좀 다시 보여 주세요.

저 중에서 사리만 반환이 됐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 사리구, 사리기, 사리를 처음 확인하신 분이 청장님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학위논문도 쓰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학위논문은 아니고……

○민형배 위원 아, 논문도 쓰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 안에 구성요소가 뭐뭐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안에는 아까 보셨던……

○민형배 위원 사리, 사리기, 사리구.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구가 있고 그 아래 작은 사리가……

○민형배 위원 저 중에 문화재는 어떤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문화재는 전체를 다 같이 문화재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일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일체라고……

○민형배 위원 저 일체가 문화재인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저희들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매장 문화……

○민형배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리갯춤, 사리장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사리와 사리구, 사리와 사리기, 사리구는 다 한 묶음인 건 맞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장을 할 때 관은 따로 떼고 유골만 따로 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로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리구 반환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잖아요. 2009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애를 쓰셨는데, 처음 발견하신 게 2004년인가 되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2004년이지요.

○민형배 위원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저것을 하려고 2009년 그 언저리까지 하다가 저것을, 문화재청의 일관된 입장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동안 계속 그 당시의 자료를 한번 다, 그쪽 보스턴 미술관하고 그 당시에 문화재청사에 왔다 갔다 한 서류를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관되게 저것은 한 세트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게 저는……

○민형배 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말씀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봐 볼게요.

저게 2009년 2월 27일에 미술관 쪽에서, 이때 당시에 김영준 씨라고 해문 스님 이분이 하던 건데, 여기 보면 사리 반환만 하려고 했었어요, 사리는 우리 것 아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미술관에서 문화재청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이때도 ‘분리 반환하면 어때요’라고 물었더니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로 함께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월 18일 날 다시 미술관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냅니다, 서한을.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래? 원래는 셋인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래? 사리기, 사리구는 놔두고 사리만 받을래?’ 그러니까 다시 2009년 6월에 ‘안 돼. 우리는 절대 분리해서 받을 수 없어. 둘 다 반납해 줘’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미술관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니까 둘 다 우리가 보관할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협상 결렬된……

○민형배 위원 그래서 단독 반환이 좌절된 거지요, 그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원칙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는, 그때 느낀 것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형배 위원 아니, 느낌 말씀하시지 말고 원칙.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원칙은 처음에 한 것은 문화재청과 미술관과의 관계가……

○민형배 위원 지금 유산청의 원칙.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금은 저는 우선적으로 협상을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협상하시는 것 말고 이것을, 저 문화재를 반환하려고 하면 원칙이 뭐냐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원칙은 사리기도 같이 받아 오는 게 맞지요.

○민형배 위원 그래요?

임영아 국장님, 저것은 이제 협상이…… 임영아 국장님.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 임영아 예.

○민형배 위원 저 중단됐던 사리·사리구 반환 협상 누구 지시로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까?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 임영아 그때 당시 2013년 4월에……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2013년 말고요, 2023년.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 임영아 예, 죄송합니다. 2023년 4월에 보스턴 미술관을 김건희 여사께서 방문하셔서 재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걸, 분리 반환하는 것을 누가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거나 지시를 해서 하시게 됐냐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종단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종단 쪽에서 사리만

큼이라도 꼭 찾아와야 된다는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민형배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의 원칙은 버리고 종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유산청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옛날에도 그것을, 사리는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한 그 협상이 결렬될 때, 함께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거기 그냥 보관해라가 됐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종단에서 요구하면 그냥 그걸 그 원칙, 문화재 오는 것은 상관없고 사리만 와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전체적인 원칙은 맞는데요. 사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리와 사리기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원칙이지만 또 종단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불교계하고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고요. 오랫동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사리라도 와야 된다.

○민형배 위원 그때도 종단에서는, 조계종에서는 사리만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반대했잖아요, 그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반대라기보다는 사리를 그것만 가져오고 사리구는 협상을 결렬할 것 같으니까……

○민형배 위원 아니, 이 문서에 다 나와 있는데, 안 된다고 반대했다, 우리는 같이 가져와야 되니까 못 가져온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탄소리하세요, 당사자시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사리가 오고 사리구를 안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마 청에서 그걸 2개 동시 반환해야 된다……

○민형배 위원 지금 그 상황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금은 저희가 사리라도 먼저 찾아와서 종단에다가……

○민형배 위원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하냐고 제가 묻잖아요. 원칙이 바뀌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원칙적으로 사리구 반환도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저 동기가 된 게 뭡니까, 사리구만 가져오게 된 동기가 된 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구만 가져오는 건 저는…… 사리, 사리.

○민형배 위원 조금 전에 임영아 국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임영아 국장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사리만 가지고……

○민형배 위원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거기 다녀와서 관심을 갖고 종단 쪽의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리를 반환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건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 임영아 국장님, 김건희 여사가 거기 다녀오고 나서 시작된 것 맞지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물꼬를 다시 댔지요.
- 민형배 위원 맞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 2023년에 방문하고 나서 바뀐 거지요? 원칙이 지금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원칙이 바뀐 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면 2009년, 2013년 그때 협상하던 때는 안 된다는 게 왜 지금은 사리만 가져올 수 있게 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그날, 제가 협상을 2월 달에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리와 사리구는 동시 반환이 원래 기본 원칙이었고 그래서 그때 협상이 진척이, 진전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러면 사리는 먼저 반환하고 사리구는 추가로 하는 이런 이원적인 분리 방법을 통해서 한 겁니다.
- 민형배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던,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문화재청이 반대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서류에.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냐고 제가 묻잖아요,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냐고.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 민형배 위원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뒤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우리 국가유산청은 어떤 상황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협상을……
- 민형배 위원 김건희 여사가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바뀌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왜 그러세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구에 대해서는 아까 해문 스님 말씀하셨지만 해문 스님도……
- 민형배 위원 이러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협상 과정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고요. 그때 상황도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 아시지만……
- 민형배 위원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이러지 않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께 고맙다고까지 했고. 그런데 유산청은 지금 그 원칙을 깨고 국제사회 관행도 깨고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다음에 조계종을 통해서 들어왔든 비선으로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원칙을 바꾼 것 아니에요, 분리해서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불교계 입장에서는 아주 멋진 일이지요, 사리를 가져왔으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즐기치게 또……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문화재 환수의 원칙을, 반환의 원칙을 저버렸고 국제사회 규범도 어긴 게 됐어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그런 사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 민형배 위원 사례는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문체위가 2016년에 뜨거웠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서 뜨거워졌다고요. 지금 곳곳에서,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KTV 때도 김건희 여사가 끼어드는 곳마다 말썽이 생겨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반환이 시작된 게 말썽이라고 보시면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반환이 시작된, 새로운 하나의 시작의 물꼬를 튼 건데 그것은 저는……

○**민형배 위원** 아니, 청장님, 왜 그런 태도로 일하세요? 정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불교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원칙을 깨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유가 뭔지를 물어보는데 탄소리를 계속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 반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리는 국가에서……

○**민형배 위원** 그때도 할 수 있었잖아요, 2009년에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때 제가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 제가 있었으면이 아니라 그때 그걸 확인한 사람이 지금 장본인이잖아요, 청장이. 이것 왔다 갔다 했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때 사리기 조사는 그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지요.

○**민형배 위원** 그때는 몰랐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가 같이 있다는 걸요?

○**민형배 위원** 그때 분리해서 들여오려고 했잖아요, 불교계에서. 그런데 그걸 문화재청이 막았던 말이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형배 위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딱 개입되니까 웬걸 국가 행정의 원칙이 확 바뀌어 가지고 국제규범까지 어겨 가면서 분리 반환을 추진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탓하신다면 저희가 협상을 잘해서……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이따 다시 따져 봅시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숨 좀 돌리시지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신동욱 위원**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김치 아니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김치, 불고기 물론 좋아하는데 조사를 해 보면요 비빔밥이 항상 1등으로

나옵니다. 그게 비주얼도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돌솥비빔밥 같으면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중국이 자기네들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등재 이후에 알게 된 건 사실입니다. 사전에 인지는 못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린성에서 돌솥비빔밥이 성급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대개 중국의 문화공정이라는 것이 성에서 먼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그다음에 국가유산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문화유산 관련해서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또 정신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비빔밥이 중국의 성급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웃놀이 아시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우리 문화유산인데 2009년도에 길림성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2021년, 그러니까 12년 만에 중국의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다음 것도 한번 보시지요.

씨름입니다. 씨름은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예전 동굴벽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말 오래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남북 최초로 공동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이것도 2009년도 길림성, 물론 길림성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기는 하지요. 길림성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가 2011년 중국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다음 것도 한번 보시지요.

씨름인데 이걸 참고로 우리 씨름 그리고 중국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는 솔각, 일본의 스모, 몽골 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화면상으로 봐도 우리 씨름하고 일본의 스모를 같은 걸로 볼 수는 없지요, 청장님 보시기에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신동욱 위원 그다음 것도 한번 보시지요.

탈춤입니다. 이 탈춤도 우리가, 사실은 탈도 굉장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도 많이 드리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인데 중국의 변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일본도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노라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우리 탈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중국은 변검 지정을 준비하는 걸로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탈춤이요 2009년도에 길림성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성으로 된 것 말고요, 성 말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급의 문화유산이 되면 거의 중국 국가 문화유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유네스코로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요. 중국의 문화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화재, 지금 국가유산청이 다 몰랐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인지하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세부적인 건, 다시 말해서 국가급 무형유산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성급이 95종목이나 돼서 세부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전부 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사실 중국이 유일합니다, 동북공정도 있고 문화공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미국이나 프랑스가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우리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이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가 되어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가문화유산으로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사후적으로 중국이 하고 나서 우리는 알았다, 이게 제가 보기에 너무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유산청에서는 어떤 모니터 기구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저희 담당 해당 과, 지정유산과에서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 유네스코도 아시다시피 관련 대사가 나가 있어서……

○**신동욱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저렇게 대거 된 것을 2021년까지 몰랐던 것은 왜 몰랐던 거예요? 그게 비록 국가유산은 아니지만 중국 성급의 문화유산으로 된 것을 저렇게 십몇 년 동안 방치하신 이유는 뭐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방치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가치를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성에서 많은 우리나라 관련 무형유산을 올리는데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진주 탈검무를 자기네 유산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진주검무가 어떻게 흑룡강성의 문화유산이 되는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런 것들도 유산청에서 파악을 하신 게 아니고 언론 보도 보고 아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목록은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목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대응에 대한 건 저희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게 매년 매년 어떤 것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담당 과나 국에서는 1년에 한 번도 체크를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문화유산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은 중국의 동북지역입니다. 그것 한 번도 체크 안 합니까, 그쪽에 어떻게 돼 있는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성급이나 이런 데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이 되거나 새롭게 움직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 관심이 집중되지 못했던 건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김치도요 중국이 2014년에 등재했는데 우리는 2017년에 등재됐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그거하고……

○**신동욱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질타를 하려고 여쭙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국가유산청에서 이런 우리 정신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정도면 혹시 TF 같은 거라도 구성을 해서 뭔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급된 것을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중국이 본인들, 우선은 성급이지만, 성급 문화유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로 나가면요 중국의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상당한 겁니다. 지금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우선 지정현황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아마 관리가, 대응해야 될 시급한 무형유산을 먼저 선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위원 목록은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하지요, 그런 건 가지고 있지요.

○신동욱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우선등재목록은 갖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걸 추가 지정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세계 인류무형유산으로 올리는 게 거기서 종목별 국가마다 배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동욱 위원 문화유산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세계인들에게 이것은 한국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무슨 홍보대책 같은 게 있어야지요.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명단 가지고 있어도 중국이 올려 버리면 끝나는데, 본인들 걸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예비목록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해외의 관련 단체와 협업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신동욱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정신을 뺏기면 그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문화재 환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문화 지키는 것 대책 세우셔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청장님, 나라를 뺏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나라를 내주면 되찾을 수 없다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지금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이런 정신문화에 관한 것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유산청이 관련 업무에 대한 기본 인식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최근, 10월 3일입니다만 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가 101건에 달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더니 우리 방송사에서 단독보도를 했고 이례적으로 그 단독보도가 나간 뒤에도 다른 방송사에서 또 후속보도를 이어 갔어요. 많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지요. 그러자 다음 날 10월 4일 날 즉시 유산청이 보도 설명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잘하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부터 한국 무형유산 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2013년부터는’ 뒤에 2016년부터라고 하는 것을 수정해서 다시 설명을 했으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자료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지요.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의 무형유산을 비롯하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보호 기반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유산청에 한국 무형유산 종합조사사업의 내용을 요청했고 거기의 과업지시서와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이것은 일반적인 국내무형유산 발굴사업이지 중국의 한국 무형문화재 침탈행위에 대한 대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것을 염두에 둔 사업도 물론 아니었어요.

본 위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유산청은 이미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 또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했고 그에 대한 유산청의 보도 설명 내용에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마치,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연구용역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마치 중국에 대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지만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서 어디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해명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면피성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무책임해 보인다.

위원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유산청이 설명자료를 내고 대응을 했어요. 위원의 옳은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16년부터 한 것을 또 시기까지 당겨서 그렇게 설명자료를 냈어요. 그런데도, 언론에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수정 보도자료를 하지 않아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또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이 문제를 유산청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소수민족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도 이해를 못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유산청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응 연구용역을 해서 선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를 왜 지금까지 안 가졌느냐, 이것이 유산청의 기본적인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고, 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이런 중국 등에 대응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찌 보면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 앞에 드리는 것은 잘못을 2배로 증가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시기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청장님,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번에 유산청이 본 위원의 보도자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낸 설명자료가, 중국 등에 대해서 대응한 연구용역이 없다라고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놓고도 그것에 대응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국민께 이런 태도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금 1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장의 견해와 또 앞으로 태도,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제가 봐도 타당하신 것 같고요.

무형문화유산 온라인조사사업을 2010년부터 2012년 즉 하면서 13년에 기초조사를 연결 갖다가 2016년부터 했다는 식으로 아마 약간, 16년에 한 걸 13년에, 종합적인 보고가 나오기 전에 기초조사한 걸 거기다 엮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박수현 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리고 중국 쪽에 대응 자료로 용역을 한 것은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하도록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전통한복을 입고 국감장을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복인데 이번에 수선을 좀 해서 다시 다려서 입었고요. 40년 넘게 우리 한복을 만들어 온 장인이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어떠십니까, 청장님? 우리 한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재원 위원 제가 이렇게 전통한복을 입고 나온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적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인상을 남겨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해에 한복을 입고 궁능유적을 방문한 관람객이 161만 명입니다. 그런데 146만여

명의 관람객이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지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복궁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재질의 천으로 만든 그런 한복이지요. 속치마에 철사 후프를 과도하게 넣어서 부풀린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전통혼례복에서나 볼 수 있는 뒤 매듭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입은 한복은 금박장식조차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한복의 형태를 지킨 한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PPT에서 보시는 이런 한복보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의견이 다르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청장님도 지난 5월의 언론 인터뷰에서 경복궁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복 빌려 입고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실제 한복 구조와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국적 불명이다, 그 중에는 중국 수입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면 우리 한복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많은 관람객이 한복 입고 우리나라 역사적 공간을 방문을 하지요, 문화 향유도 하고. 그렇지만 한복 활성화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전통가치가 무엇인지, 보다 원형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고 제대로 지켜 나가는 것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정말 오늘 저희들한테 아주 큰 힘을 주신 것 같고요, 한복도 너무 아름다워십니다.

제가 5월 달에 그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바로 국가유산청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국립고궁박물관과 경복궁을 자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퓨전 한복이라는 게 외국 사람들이 전부 우리 전통한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걸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반발과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궁능에 이렇게 변형된 한복, 전혀 원형 한복의 모양을 가지지 않은 한복들도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궁능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모두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궁능유적 모두가 국가 사적이구요. 그중에서도 창덕궁, 종묘, 조선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지요. 그야말로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인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화려함만을 강조를 해서 전통한복과 거리가 있는 한복까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이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관광지 같은 데서 개인이 마음대로 옷을 입을 그런 자유 또는 전통문화의 재해석, 재활용 차원에서의 존중은 마땅하지만 적어도 원형 그대로 지켜야 하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완고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최소한 궁능은 다르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방문한다면 우리 전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전통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만 궁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입었던 퓨전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게 존재하고 있지요, 대여점들이. 그래서 이런 데 반발이 심하고 또 어떤 일부에서는 퓨전 한복도 한국을 홍보하는 한복인데 그걸 왜 금지하느냐라는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그쪽에다만 채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한복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나 잠깐의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딱 그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심한 것을 우리 전통이라고 자칫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통한복의 형태와 정신을 정확하게 지키고 알리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복은 또 2022년에야 우리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통한복에 대한 가치 재조명하고 알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들 지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청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아시지요? 특수목적법인으로 국가유산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빨간 원 안에 좌측이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 우측이 김건희 씨입니다. 김종규 이사장, 일찍이 김건희 여사와 월단회라는 사적 문화계 모임 일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월단회는 2023년 낙마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행 전 내정자가 얘기를 했는데, ‘월단회가 문화계 인사들이 모인 단체인데 김건희 여사를 문화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 멤버들한테도 완전히 스타였다고 한다’고 말해서 친분을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탁 정부 보조금 받는 단체입니다. 올해 11억이 넘는 국가 보조금 지원됐고 지자체 보조금도 6억 5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약 40억 원 기부금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회비 및 기부금이 약 19억 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민신탁 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하면 올해 약 7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사장이 18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협에서 4연임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여섯 번째, 3년 임기 여섯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임금이 없다지만 수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수십억 원 국민신탁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체육계 연임 사태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체육회……

○**김재원 위원** 예.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정관을 유산청이 승인하고 방조하는 것 이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와 월단회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건지.

우선 국비와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신탁 정관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국가유산청이 이를 계속 방치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말씀하신 대로 김종규 이사장님이 오랫동안 장기 이사장에 취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무보수로 워낙 그쪽에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신탁은 회원 모집인데 3500명에 불과했던 2012년 것을 지금 2만 명 가까이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로를 많이 저희가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이사회 승인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만 이사회 승인이 되면 계속 연임이 되는 구조라서 그런 걸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이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원이 많이 모이는 것도 그 안에 이권이 반드시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혹시 차병혁 독립투사 아시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름은 들었습니다만 생가는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생가는 직접 안 가 보셨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차병혁 선생의 생가입니다. 그림 한번 봐 주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시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독립투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광복 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유관순, 윤동주, 이회영, 송진우, 김마리아 이분들과 함께 독립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가가 현재 저 모양 저꼴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독립운동가 장호근 선생님입니다. 저분의 생가는 어디인지 아시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치 말씀하십니까?

○양문석 위원 예.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고양시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경기도 고양이요?

○양문석 위원 예.

독립선언서 2만여 매를 배포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셨고요. 16년부터 45년까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기를 빼곡히 적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생가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청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13쪽도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문화자원 조사,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조사 목록화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 저기 또한 갑자기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계속해서 지적받는 게 뭐예요? 신동욱 위원도 박수현 위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 대응이 미진하면 주변 정부부처나 정치권에게 요청을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유산청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갑자기 발굴한 생가 아니잖아요. 보도된 생가들이잖아요. 독립유공자들이 돌아가서도 저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유산청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지요?

독립운동가 생가는 총 몇 개로 파악되고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전체는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3건에 불과합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생가는 144곳이고요 유산청은 8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가 47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85곳, 60%의 생가가 방치되고 있어요. 수치 틀렸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겨우 8곳 관리하면서 뭐 제대로 해내는 게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훈처가 안 하면 유산청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 그러면 협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생가 60%를 방치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국가행정입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항일 및 독립운동 유산 실태조사 현황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 번도 없어요. 박근혜정부 한 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세 번. 항일 또는 독립 문제는 관심 없나요? 중국 문제만 관심 있나요? 계속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치 바람 타시나요?

항일과 독립 문제…… ‘정신을 잃으면’ 하고 신동욱 위원 아까 지적할 때 너무너무 백배 공감했습니다. 자꾸 정신을 잃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유산청 왜 필요하지요? 대답 좀 해 보세요. 유산청 왜 필요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정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를 중심으로, 등록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대가 내려가거나 50년이 안 된 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파악 못 한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챙겨서, 50년이 안 된 예비등록문화유산을 새롭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청장님, 독립운동가들의 생가가 50년이 안 될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50년이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자체에서 올리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 부족해서 제외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끊임없이 유산청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유산청의 존재 이유와 설립 이유에 타당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찾아달라, 신고해 달라. 그다음에 최소한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책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념관들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나라가 정신을 잃지 않는 길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3대가 거지로 살고 그 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그것 하지 말라고 보훈처하고 유산청 만든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예산을 받지 말든지, 역사문화자원 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분에 유산청이 분명히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법적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커서 그래요. 이게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좀 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역사 문화 지리 이런 부분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통해서 동북공정과 같은, 아주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역사왜곡과 문화왜곡들을 해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대한민국 고유의 가치, 고유의 역사,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있나요? 이론적 배경이 있나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침탈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매뉴얼이 있나요? 이런 것 준비해야 되는 게 문화유산청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양문석 위원 이미 중국과 일본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깊게 실천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 배경부터 매뉴얼까지 철저하게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침탈, 문화적 침탈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 만들고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교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유산청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유산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지적 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놓쳤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훈부하고 마칩 또 9월 달에 이런 생가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가치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양문석 위원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보훈부하고 유산청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양문석 위원 TF팀 꾸려서 제대로 대응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시는데 아까 국외문화유산 환수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노력도 중요 합니다. 이 자체가 갖는 의미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겁니다. 다만 과연 국내문화유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환수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가 다 아시겠지만 한글날 578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에 가장 주목 하는 문화제는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가치를 떠나서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주본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해례본 상주본이 발견된 지가 16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국가 소유도 아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소유권은 저희한테 돼 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대법원 판결이 소유권은 넘어왔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확인이 안 됐지요.

○정연욱 위원 몇 년 전에 이 소유자 배 모 씨 자택에 화재 사건이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화재 사건이 있었던 그 상주본의 불탄 걸 본인이 보여 준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정연욱 위원 해례본의 일부가 훼손된 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개인의, 본인 배 모 씨의 얘기 외에 이 상주본의 보관 실태가 어떤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 입장에서든 저 상황은 본인이 공개한 사진 외에는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연욱 위원 국외문화유산이 지금 반출된 게 24만 건을 얘기하고 환수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니터링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장 눈앞에 닥친, 벌써 십몇 년이 지난 해례본 상주본 자체 이 실태도 파악 못 하고 보관 상태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600년이 넘는 고문서가 불이 나고, 지금 보통 웬만한 고문서도 보관하려면 상당한 방수나 뭐 이런 방습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보관 실태를 어떻게 한마디만 듣고 보관 실태를 장담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이 배익기…… 소장이 이름이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을 그냥 정상적인 소장가로 보시면 어렵습니다. 이분은 고미술끼리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들어간 문화재를 자기가 돈을 1000억 원을 달라는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절대 공개하지 않고 저것을…… 저희는 수많은 공문과……

○정연욱 위원 알고 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법률적인 것 그리고 압수수색도 했지만 끝까지 이걸 불응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1000억만 주면 내놓겠다는 이런……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진 자체도 저것이 확실한 근거의 사진인지 현실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것이 해례본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저희는 환수를 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사실상 국보급 문화재를 이렇게 개인이 보관하는데 관리가 잘 되겠냐는 게 아마, 이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지만 국민들은 과연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겠냐는 우려부터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문 보내고 답신 받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더 진전된 건 없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압수수색을 한번 했는데, 어느 정도 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없어서 더 이상 압수수색했다가는 큰 반발을 일으킬 것 같아서 못 하고 있고 계속 중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건 그러면 국가가 안 나서고 다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아마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가 지정이 있고 시도 지정, 지정되지 못한 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건 아직 지정된 건 아닙니다.

○정연욱 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도난신고의 접수 기준 대비 회수 실적을 한번 따져보니까 실제 도난 사건, 저것도 사실상 크게 보면 내놓지 않는 거니까 도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933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3년 작년까지. 그중에 회수된 게 2109건, 결국 회수율은 한 71%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국외문화유산 환수 많이 해야 되고 모니터링 열심히 해서 하셔야 됩니다. 당장 국내에서 이런 사건 자체가 방치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산청 내에 안전방재과 다시 말해서 사범단속반이 운영 중에 있고 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문화유산, 특히 이러한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은닉을 하고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외국 반출은 저희가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바람에 또 오히려 은닉기간이 길어지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튼 환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것도 아마 국내에도 이런 도난된 문화유산도 모니터링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목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목록화되어 있고……

○정연욱 위원 목록이 돼 있고.

옥석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도 계속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다음에 추가로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체육회 관련한 현안이기도 하고 해서 태릉의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부분에서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체육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산청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만.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체시설 건립 일정을 원래 2026년까지 되기로 했던 것을 2030년으로 늦췄다고 문체부에 작년 10월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문화재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체육회는 이 2026년 건립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정연욱 위원 올해 4월에도 체육회는 그대로 2026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받은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이전에 대한 연기는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 아무리 늦어도 최대 무조건 26년, 27년까지는 다 나가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2030년을 얘기했고. 여기서 분명히 지금 문체부에 보냈던 작년 10월에서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국가유산청에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유산청을 무시하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공식적인 협상은 한 적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만 알고, 답변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연욱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다르게 나왔다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27년은 알고 있습니다. 27년은 저희가……

○정연욱 위원 2030년 얘기는 못 들었던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부지 공모 때문에, 결국 부지 공모 연기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산청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사용기한 연장해서 조건부 수용하겠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조건부 수용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조건부 건은 내용이 어떤 조건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7년까지 제가 봐도, 완벽하게 국제빙상 경기장이 건설이 돼서 다 옮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일단은 공모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옮기는 게 확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얼마든지 저희가 조금의 여유는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는 이 자체를 누가 훼손할 수 없는 가치일 겁니다. 다만 체육회가 왜 이렇게 문체부에 보고하는 것과 유산청, 직결되는 이해당사자의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고도, 두 차례나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국가유산청은 아무런 대응도 못 한 것 아닙니까? 잘못 보냈다는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그게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오거나 거기에 대한 그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연욱 위원 공문으로 온 게 아니라……

공문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에요?

○정연욱 위원 국가유산청에 2건을 보낸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받은 공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내 드릴까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유산청장이 모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때 27년으로 얘기했고, 30년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따지셔야지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항의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문체부로 보냈다 합니다, 저희한테는 온 게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아니, 문체부에 보낸 게 2023년 10월이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요, 문체부에서…… 30년으로 보낸 게 문체부에 와 있고 저희한테는 이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아니, 그건 문체부에 보낸 거고 체육회가 유산청에 작년 12월에 보낸 게 2026년 건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공문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맞습니다. 2026년은 맞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2026년이 건립이지만 27년까지 1년 정도의 시차는 둘 수 있다는 정도만……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30년 얘기는 못 들으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처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잘못 간, 이중 플레이 한 것 아닙니까. 따지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일산의 이기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 강원도에서의 산양 폐사 관련해서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겨울에—올 3월까지지요—우리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지금 유산청에서 밝히고 있는, 약 2000여 마리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중의 절반 이상인 1022마리가 작년 겨울에 집단 폐사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죽 돌려 주시지요.

폐사가 있었어요. 이 폐사는 확인된 것만 1022마리고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건수도 하면 2000마리 중에 얼마만큼이 지금 멸실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는 국가유산청의 고유 업무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눈이 오면서 멸실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140마리 정도가 멸실됐고요. 2월 달에 227마리가 멸실 신고됐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들은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의 현장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367마리가 또 정점을 찍고 멸실됐습니다. 그때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줄줄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그때 유산청은 3월 말이 돼서야 환경부에 공문 하나를 보냅니다. ASF 율타리에 의한 집단 폐사가 의심되니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유산청은 먹이 주기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산청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이 주기 행사하고 사진 찍기 하고 이게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산양의 집단 폐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7월서부터 YTN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각 전문 연구기관, 학계와 함께 폐사 위치 데이터를 다 긁어모아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었더니 이 집단 폐사가 대부분 설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의 ASF 율타리 인근, 그러니까 산양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먹이활동을 못 해서 결국은 거기서 탈진하거나 아니면 아사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멸실된 사체의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이 율타리 근처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이 아니고 멸실이지요. 용어 문제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유산청하고 저희 방하고 그리고 언론사 몇 분씩 같이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8월 6일 날 열었고요. 그때 제가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각 정부부처는 합동 TF라도 만들어서, 올겨울에 다시 지난해처럼 1000여 마리가 멸실이 된다고 하면 산양이 1년, 2년 안에 완전히 멸종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올겨울에 기어이 막아 달라,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환경부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본인들이 구간 구간에, 한 네다섯 군데에 4m짜리 펜스를 개방하기로 했던 걸 저희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4m지만 ASF 율타리 스물한 군데를 추가 개방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먹이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지요.

최근의 보도를 보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돼지농가들은 약 10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개별…… 이미 ASF는 경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쳐져 있는 저 ASF 율타리가 실제적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 중심의 방역에 더 집

중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고 지자체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구조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게 폐사한 새끼 산양입니다. 심지어 구조돼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뒤에 보시면 1t 트럭이 나옵니다. 유산청이 가지고 있는 트럭 중 1대고요. 저 뒤에 구조된 산양들을 싣고, 구조돼서 옮기다가 동사합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산양들이, 유산청의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구조체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문화재청이 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연유산법도 제정하고 자연유산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공석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남짓입니다. 1억 남짓의 예산으로 이렇게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멸실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야생동물만을 보호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산양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자연문화유산 그리고 멸종위기종 동물들에 대한 구조체계가, 그리고 이 동물들이 모니터링되고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구조되고 치료받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관리 시스템 체계가 유산청 내에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산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론회 끝나고 나서 TF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7월 달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산청에서는 단 한 번의 의원실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 좀 주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산양보호협회 등과 산양 폐사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 위치, 좌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연유산국이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점이 있고요. 앞으로 대책을 조금 더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집단 폐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모니터링하고 또 열심히 환경부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잠시만요. 청장님, 이 말씀은 7월에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듯이 올겨울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강원도에 또 집중되겠지요.

폐사 지점이 확인이 됐어요. 왜 폐사됐는지에 대한 원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 주셨던 내용과 똑같이 환경부와 협업해서 열심히 잘 챙겨 보겠다 이 정도의 답을 주신다는 것은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올겨울 어떻게 넘기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지자체와 함께 민간 산양보호협회, 구성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먹이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먹이 주기만 가지고 안 됐다는 게 지금까지 검증된 사실입니다.

먹이 주기 예산 남아나 있으세요? 지금 트럭 운영 예산에다 먹이 주기 예산 다 합쳐서 1억 얼마던데 그걸로 산양 집단 폐사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방대한 지역의?

저는 청장님이 아직도 안이한 생각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눈이 올 거예요. 작년에 1000마리가 넘는 산양이 집단 폐사했는데 이제 저희가 얼마만큼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이후 겨울을 버틸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담당 과장님께도, 그 당시 토론회에 왔던 분에게도 환경부, 농림청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TF라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 합동 대응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 뒤로 추가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장님, 정말 내년에 다시 저희가 국감 할 때 또 올겨울에 1000마리 죽고 난 다음에 똑같은 얘기 하실 겁니까?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와의 협업 하시겠다는데 전혀 협업 안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일입니다.

청장님,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요. 종감 전까지 이것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용어 문제인데, 환경부나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들의 사망을 폐사라고 표현하는데 유산청에서는 멸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설이 파괴되는 것이 멸실이라는 표현으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보시면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외 소재 문화유산 목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약 18만여 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24만여 건 정도, 6만여 건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 건수가 19년에는 19건 그리고 24년도에는 4건, 매우 저조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환수 목록은 급증하고 있고 환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예산 또한 보면 20년도에는 55억에서 현재 83억으로 증액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환수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환수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저조한 상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는 환수 대상 기관과의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종오 위원 비공개로 하기도 하고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유물을 환수한다고 했

을 때 그쪽의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인데요. 아마 환수 대상 유물의 숫자가 해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하는 유물의 숫자가 차이가 있고 또 그중에는 굉장히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물들의 목록을 파악해 가면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수 숫자를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환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종오 위원 예, 맞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환수 예산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는데요. 일단 기증이 있고 또 매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기증 같은 경우에는 환수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유물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환수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수가 좀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 좀 드렸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다음은 유산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을 해외에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다수 유물이 반출된 건이고요. 관련 법 위반해서 혐의가 드러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양 전 회장은, 'TV쇼 진품명품'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진종오 위원 거기서 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대중들에게 신뢰도 얻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그런 분이 관련 법을 어기고 유물을 반출했다는 사실, 국민들이 매우 분노할 수 있습니다.

유산청 허가 없이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문화유산이라도 50년 이상이 되면 허가받아야 되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허가를 받게 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런 반출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유산청에서는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예정이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경위를, 아마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겠지만 저희들도 처음 접해 보는, 이를테면 국제특송을 이용해서 감정을 안 받고 나간 사례인데 그 목록에 보면 전부 그게 50년 이하의 현대품이라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입수해서 현장에 급파를 해서 그걸 감정을 했고 거기에서 반 가까운 점 수가 50년이 넘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확인했고 불법적인 걸 저희가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아까 이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기현 위원님도 뭔가 우리 유산이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이 다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산청이 관리 감독, 모니터링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출에 대해서는 감시와 관리 체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런 사례를 저희가 처음으로 접해서 거기에 관련된 관련기관과 그리고 공항, 업체 그리고 모든 쪽에다가 전부 저희가 같이 교육하고 그리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에게도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기를 유산청장님께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 자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시를 출신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연상시키는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지난 7월 30일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가뭄, 용수 수용 등을 대비해서 기후위기 대응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14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은 알고 계시지요, 오늘 보도도 됐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댐 건설 후보지……

PPT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댐 건설 후보지는 작년 5월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댐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협조 요청이 오니까 그때 가서 협의를 또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

○**조계원 위원** 작년 5월부터 추진이 됐었다니까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댐 건설에 대해서……

○**조계원 위원** 그리고 올해 7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요. 후보지도 이미 발표가 됐는데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중에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소위 말하면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한 군데 정도가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지금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요청이 안 들어왔으면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조계원 위원**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4개 후보지들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 후보지들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등등이 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사실도 그러면 모르고 계시겠네요?

화면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제 고현천을 제외하고는 14개 후보지 거의 대부분에 국가유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댐의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문화유산이 산포해 있는지 또는 말씀하신 자연유산이 분포돼 있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7월 30일 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본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구를 2개월 뒤인 9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지도 기본 실태조사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다니 이걸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딱 하고 보내온 게 딱 한 군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여·청양 지천의 미호종개 서식지 이쪽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천연기념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입니다.

○**조계원 위원** 예,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이고 다른 지역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고. 본 의원실이 좀 전에 PPT에서 보여 드렸잖아요. 전 지역이 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확인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그쪽에 저희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거나 천연기념물이 있는 데는 저희들의 허가사항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저희들과 협의를 아직 해야 될 단계가 있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위치 조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전이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7월 30일에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협의 요청조차도 없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협의 요청이 없었으면 뒷북 대응조차도 안 하고 그냥 협의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직 공유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좀 더 영향을 받는 유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적어도 이 정도까지 상황이 진척됐으면 뒷북 대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담당 책임자 누구십니까?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다 관련이 돼 있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게 종합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조계원 위원** 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을 세상에…… 국가유산청으로 조정하면서 국가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국가유산청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자연유산, 문화유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멸실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대책을 빠른 시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7월 30일 발표 뒤 2개월 뒤에 국가유산청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답변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상식적으로 물어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을 그때까지도 답변을 이렇게 해요.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환경부에서는 댐 건설 후보지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반발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대규모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들으셨지요, 이제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까지 두 손 놓고 있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저희들이 이전을 떠나서 그 주변에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는, 소위 말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이나 그런 걸 관리할 때는 저희들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희들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배제하고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주무부처에서 아무런 협의조차도 소통을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이미 지역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 멸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하는 거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한 번 소실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전이라는 방안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조계원 위원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댐 건설 후보지역과 인근 문화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안전한 보전관리대책을 수립하시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좀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앞서 사리구 반환 문제가 얘기됐었지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보면……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나온 거요. 저 사리구는 아까 봤고.

이때 사리구 반환행사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 반환.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사리만 반환됐지요. 사리구는 원래 2009년에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사리와 사리구가 함께 반환이 돼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이 있었

고 청장님도 그때 그 입장을 견지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시다.

○조계원 위원 역할은 안 했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 입장이셨지요? 지난번 답변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도 한국인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조계원 위원 그게 당연한 거고 보스턴 박물관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미술관인가요, 박물관인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미술관.

○조계원 위원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사리는 얼마든지 반환이 가능하지만 사리구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어서 협상이 안 되고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보다는 혜문이라는 승려의 단독적인 개인의 협상 결과였기 때문에, 아마 사리와 사리구는 좀 다른 요건이었습시다, 그때 당시에.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1분 추가 드리려고 하는데 1분 내에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중에 보충질의……

○조계원 위원 예, 마무리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정하 1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행사 사진 좀 띄워 주시고요.

당시 사리 반환행사, 이운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초대를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공식적인 초대보다는 불교계로부터 받았습시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 알게 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참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아니고 불교계에서 사리 반환의 이운식을 회암사에서 한다고 연락받고, 저희가 환수할 때 가고 조계종단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요청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 띄워 주기 행사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서 국가유산청은 그마저도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국가유산의 환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할 수 있는가, 여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관여라기보다는 그 물꼬를 텃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협상은 저희가 다 했지요. 국가유산청에서 당연히 한 거고. 종단을 그때 참석시킨 것은 사리 문제만큼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2009년에도 이미 미술관 측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면 사리만 반환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서 진행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실제로 그 당시 조계종이나 이쪽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인사말에 표시를 했는데요.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리구 반환 관련해서 회의록 그리고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의 논의 과정 일체 그리고 반환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반환 협의를 위한 출장기록 그리고 현재 반환 협의 진행 중인 국가유산목록과 협의 내용 이걸 이미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저희 의원실에 제출 안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라고 제가 했는데……

○조계원 위원 지시를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됐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직접 갔다 온 당사자로 여비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밝혀야 되고, 회의 내용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녹음, 녹취록까지 다 있고. 장시간의 토론 끝에 사리만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과정도 다 거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희 의원실에 자료 안 왔다니까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리 반환이나 사리구 반환 문제는 국가유산청이 담당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서서 협상,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문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조계종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로로 치하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모든 국정의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질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 위원님 방에 전달이 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 전까지 확인해서 전달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청장님, 인문학 박사신데 언어나 명칭은 사실에 대해서 확정력을 갖고 인식에 대해서 규정력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강유정 위원 왜란이라는 단어에서 ‘왜’가 비하어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다시 한번……

○강유정 위원 임진왜란 할 때 ‘왜’라는 단어, 비하어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왜국이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겁니다.

○강유정 위원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비하어 아니었지요? 왜라고 불렀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강유정 위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 빼고 왜란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2024년 9월 26일 남원에 만인의총역사문화관 개관했습니다. 청장님 거기 가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개관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임진왜란 직후 일본군의 침입으로 다시 벌어진 전쟁인 정유재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는 표현이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이제 PPT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의 막상 공식적인 팸플릿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진전쟁, 정유전쟁’. 이게 일반어인가요? 우리나라 ‘명량’, ‘한산’, ‘노량’ 해서 3000만 관객이 넘어요.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지 어느 대한민국의 사람이 임진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정유전쟁이라는 표현 씁니까?

청장님, 이것 안 보셨어요, 가셔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위에는 정유재란이라고 나오는데요.

○강유정 위원 공식 팸플릿입니다. 제가 가서 이것 찍어 왔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위에 정유재란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아마 이 밑에서……

○강유정 위원 아니요, 임진·정유전쟁이라고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찍어 왔다니가요. 24년 9월, 2주밖에 안 됐어요.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이라는 곳 자체의 팸플릿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임진전쟁, 정유전쟁 표현은 제가 알기로 2011년 역사교과서에 실리네 마네 논쟁이 매우 됐던 문제적 표현입니다. 단순 표현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곳을 견학 온 어린이들이, 임진왜란이라는 말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임진전쟁 입력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 의사를 저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국제전쟁박람회 이런 것도 해서 국제전…… 임진왜란의 ‘란’ 자 표현 아시지요, 박사 받으셨으니까? 란은 침략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보여 주는 부산영화제 개막작도 전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진왜란을. 그런데 전쟁이라는 표현은 달라요. 쟁은 상호 아주 대등한 싸움을 가지고 쟁이라고 합니다. 이것 굉장히 의도 있다고 보이고요.

배포 엽서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이 일본에 도착해서 조총을 넘긴…… 이것 우리 기념관이에요, 일본인들이 와서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에요? 저는 매우 불쾌하거든요. 이 조총으로 인해서 임진왜란 때, ‘전, 란’이라는 영화나 혹은 ‘명량’, ‘한산’, ‘노량’만 봐도 나와요. 조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글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상처 해집는 건가요? 일본인 집중 관광구역 만들려는 건가요?

제일 뒤에 넘어가 보면 문화재청장이 이곳에 참석한 거 나옵니다, PPT 넘겨 보시면. 가셨어요. 이거 안 보시고 뭐 했나요? 전란 전시 보면서 칭찬만 하고 오신 건가요?

이거 종감 때까지 왜 그랬는지 완전히 사유도 밝혀 주시고, 이 전쟁이란 용어가 과연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그리고 아주 일본 측에 가까운 단어라는 거, 분명한 사과 요구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정정해야 될 거라고, 제가 동의한다고 보시는데요. 임진전쟁, 정유전쟁 이것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정정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보도자료 내면 보통 보도자료 파일에 원문 파일 같이 붙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강유정 위원 그게 매우 일반적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강유정 위원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고 볼게요.

PPT 화면 보실 텐데, 이것 문화재청장 당시에 했던 일이시니까 잘 아시지요.

2022년 4월 19일 가야금 명인인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명인이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래서 전수교육관 건립하겠다고 했던 그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화면 하단의 첨부 파일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다른 보도자료와 달리 이것은 이영희 명인 사진 한 장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념식 당일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완공 예상 시점이 2027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보도자료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27년이다라고 언론에는 실린 겁니다. 이렇게 넘어갔던 일인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전수교육관에서 가장 큰 문제 뭐였나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전수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땅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강유정 위원 땅 문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강유정 위원 이거 어디 소관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토부 소관입니다.

○강유정 위원 국토부 소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2022년 4월 19일 날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2022년 8월 유산청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범위 관련 자료 보내면서 협의 요청도 합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전수교육관 이후에 이걸로 오간 공문을 저희 못 발견했어요. 공문 없습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하나 더 PPT 넘기면, 그런데 갑자기 2023년 5월부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엄청 바빠져요.

먼저 5월 17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 옵니다, 거꾸로.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국가유산청이 오히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내부 보고합니

다. 갑자기 속력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리고 6월 8일에는 5월 22일에 내부 보고한 이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행정예고도 됩니다. 전부 다 8월 1일 같은 날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각각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령도 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청장님, 2023년 4월 4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어떤 행사 했었나요? 청장님 참여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기능, 예능 중에서 먼저 예능 보유자들……

○강유정 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 예술 분야 보유자, 이수자, 전수생 20명과 오찬 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간담회 했습니다. 오찬 겸……

○강유정 위원 이 자리에 이영희 명인 있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있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있었습니다, 가야금 명인.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다 하면 모든 일이 참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되는 듯해요. 이렇게 이영희 명인이 참석했고 2500평에 달하는 기부채납이 1년 내내 담보하다가 이 오찬 이후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시행령도 개정이 속전속결로 되고, 가히 영화 ‘홍반장’처럼 김건희 반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반장인가 싶은데.

저희 지난번 질의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참석자들이 승진을 하기도 하고 민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민간인에 해당하지요. 민간인에 해당하는데,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저한테 설득을 좀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도 움직인 거고요. 문화재청의 담보한 상황을 이영희 명인의,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적 프로세스를 입증시켜 주면 돼요. 입증만 시켜 주면 이 의혹은 사라지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에서 보도자료를……

○위원장대리 박정하 강유정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아까처럼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보충질의……

1분 드릴게요.

○강유정 위원 예, 1분이면 됩니다. 딱 다섯 줄 남아 있습니다.

이 특혜 의혹과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입증해 주시면 되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삭제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역 전체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감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잠깐 간단하게 드리고 또 보고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것 그냥 저한테 자료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 보내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강유정 위원 보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하신 기능·예능 보유자 간담회는 그 당시에 저희가, 상춘재를 포함한 청와대 권역을 전부 관리하던 곳이 문화재청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원래 늘 하던……

○강유정 위원 아니요, 그 만남 이후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됐으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강유정 위원 제가 요구한 국토부와 의 협의내역 전체를 보여 주시면 그것 보고 판단 하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한테도 계속 민원을 넣으신 상황이에요, 그게. 넣으신 상황이고 계속 저희는 협의를 했고……

○강유정 위원 민원을 넣었습니까? 누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영희 보유자께서 우리한테, 저한테 해결을 해 달라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유정 위원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건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저한테 얘기를 했다니니까요. 이영희 보유자가 저를 면담 때도 그걸 하였고 그리고 계속 이것을 수정구에……

○강유정 위원 김건희 여사 만나고 해결된 것은 시간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시간 순서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당시에 문화재청의 큰 현안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게 됨으로 해서……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보내 주세요. 민간인 김건희 여사가 말하고 나서 일사천리로 된 것을 저한테 문화재청의 프로세스에 의한 거라고 증명해 주면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증명이 되시기에……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청장님, 충분히 정리하셔서 오후에 강유정 위원님 다시 말씀 주실 때 다시 답변 주시고,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율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청장님, 어제 한글날이지요. 한글날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뒤에 있는 경복궁의 광화문 현판에 대해서 한글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유인촌 장관도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다수 여론도 한글 교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유산청은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은 전혀 교체 생각 안 하고 있는 걸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작년에도 야당에서……

○김승수 위원 현재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입장은 저희가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지금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김승수 위원** 이게 지난해 교체는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 현판이 6·25 때 소실되었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현판을 걸었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 교체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의 한자 현판으로 임태영 글자, 그 당시의 글자로 복원했다가 나중에 또 뒤늦게 사진이 발견돼서 사진을 보니까 그 배경과 글자의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작년에 최종 복원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영건일기라는 그 기록이 발견됐지요, 일본 도서관에서.

○**김승수 위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광화문 현판의 글자를 쓴 임태영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또 국민들한테 어떤 분이 의미가 있는 분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십니까?

○**김승수 위원**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임태영.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근대화의 개척을 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고……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임태영과…… 두 분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것은 다르지요. 이때는 콘크리트로다가 단 건물이고 그걸 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김승수 위원** 그리고요 그나마 임태영 씨가 나름대로 괜찮았던 그런 인물이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비위, 부패로 얼룩진 탐관오리의 전형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시고요.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길주목사 시절에 암행어사 탄핵을 받고 삭탈된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1860년 경신년 때 조정의 허가도 없이 개인적인 사적 감정과 또 천주교도들의 재산 약탈을 위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천주교도들을 체포·구금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까지 자행을 해서 파면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당시에, 임태영의 글씨라는 것은 임태영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사람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러니까 어영대장이라는 건……

○**김승수 위원** 아니, 좀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무관이라는 그 글씨를 달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재주가 있는지 계속 또 오뚜기처럼 살아납니다. 홍선대원군의 총애를 받았는지, 그래서 경복궁 중건 책임자로 영건도감제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이 지위를 활용해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광화문 현판을 이 사람이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의 비위, 행실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데 잘 아시는 이태리의 카라바조처럼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나느냐? 이 사람이 당대의 명필이라는 기록을 어디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글씨로 복원한다 그럴 때 서예가들의 거의 공통적인 반응은 ‘글자 자체로서 문자 조형, 필체에 보존 가치가 없다. 글씨로서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 정통성이 없다. 유치하기까지 하다. 죽어 있는 도안이다’, 누구 하나 찬성한 서예가들이 없습니다. 행실도 그렇고 글자 자체도 작품성과 예술성은 고사하고 정말 보기조차 부끄럽다는 그런 의견이 한결같은데 왜 이 사람 글자를 버젓이 걸어 놓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예가의 원로 조수호 씨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현판인데 전혀 쓴 맛도 나지 않고 생명력이 없다. 글씨로만 봐 가지고는 차라리 박 대통령의 한글판이 훨씬 낫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현판 어디 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고궁박물관에 전시는 고사하고 지금 수장고에 거의 처박힌 채 방치돼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취급받을 만한 그런 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을 다시 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글자 쓴 사람의 행실도 정말 어디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고 글자체조차도 보면 우리나라 서예의 정통성을 대표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의 글자를 왜 거기다 걸어 놓는다는 겁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 글자를 거기 현판으로 했다는 것은 1865년 중건 당시 그때 글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이 창건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1395년 창건 당시의 글자는 알 수도 없고 중건 당시의 글자가, 그 사이에 현판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중건 당시 글자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게 중건이 아니라 마지막 중창이지요. 그게 1865년에 시작돼서……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글자를 버젓이 걸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글자 하나를 저희가, 제 마음대로 내일부터 당장 한글로 바꾸고 오늘은 한문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한테 당장 바꾸라,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바꾸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서예가들은 글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2010년에 시작된 한글 현판의 논란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요.

○김승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저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했던 사람의 글자 그리고 글자 자체로서도 전혀 상징성이 없는 글자 이것을 우리 고궁의 얼굴, 광화문 현판의 글자로 걸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대사 경제발전에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폄해를 하고, 지금 오히려 보면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적 주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정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열정이 있으며 강한 투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칭찬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폄훼하면서 현판 떼 내고 끌어내고, 그것도 전시는 고사하고 그렇게 수장고에 처박아 뒀다 되냐 이거지요.

역사를 바로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래도 보면 제대로 공과 과를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광화문 현판은 정말 제대로 된 글씨,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글씨가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글서예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유네스코 국가유산에 한글서예 등재됐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유네스코 국가유산에 한글서예 등재됐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중국서예, 몽골서예는 등재돼 있는데 한글서예는 등재되지 않고 있고 전주……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 유네스코예요?

○김승수 위원 예, 유네스코에 등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한글에 대해서 선양을 하고. 또 지금 K-콘텐츠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쪽에 더 부가적인 노력이나 지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게 지금 국가유산청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국가유산, 이런 문화유산에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글날이 어저께 있었고 늘 한글날이면 우리 한글 사랑이라든가, 한글의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또 이 광화문 현판이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2010년부터 시작된, 광화문 현판이 한문으로 걸렸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 거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현판이 갈라지고 다시 재제작에 들어가면서 1865년에서 68년 당시의 모습으로 중건할 때 모습을, 걸려 있던 한문 현판을 그대로 원형에 가깝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 문화재 복원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재 위원들, 문화재위원회가 오랫동안 한 끝에 결론이 난 것이고 제가 와서 바꾼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미 6~7년 전부터 제작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최종 완료가 작년에 이루어졌습시다만 제작비와 그동안의 과정을 본다면 저는 진부한 또 이 다사다난한 이렇게 또다시 시작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태영의 글씨는 임태영 개인의 그걸 떠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게 궁궐 바깥의 글씨는 그 사람의 글씨체를 떠나서 무관에게 받아서, 그래야지 화재를 예방하고 이런 의미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태영이 평가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역사적인 고증에 맞춰서 걸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더 하시되 하루아침에 또는 내일 당장 뭐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의견을 통해서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최 청장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최악의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쓴 사람의 행실도 문제지만 글자체 자체도 보면 그렇게 보존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 정서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속하게 조속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 5월 17일 2024년 한-유네스코 정책협의회 때 외교부 말씀 자료, 발표 자료 국가유산청이 대신 써준 적 있으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저희 자문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공문인데요. 외교부장관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국가유산청이 말씀 자료,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어 보냅니다. 그만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국가유산청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사도 광산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수많은 회의 참석 등 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준비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국가유산청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세계유산 등재 동향자료 수집 등 연구자료 여기에 보면 일본 학계에서조차 군함도 등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사도 광산의 사례는 다르다며 굳이 강제동원 기술을 피할 필요가 없다.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을 지낸 마쓰우라 고이치로 역시 사도 광산 조선인의 노동·생활 실태를 반드시 사실에 따라 정직한 태도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연구에서 사도 광산 등재 문제성 지적 필요와 노동자의 인권과 비인간적 착취를 숨김없이 인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된다.

청장님 동의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리고 외교부에서 주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그 회의에도 국가유산청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그리고 또 국가유산청에서 작성한 사도섬 금광 결의문 초안 의견서 중

합의견을 보면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할 수 없고 강제동원 관련 전체 역사 해설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외교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각 대학 교수 등 우리나라 세계유산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산업유산 핵심은 이를 일궈낸 노동자이며 한국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유네스코의 판단에 따르면 가해국가, 피해국가 간의 갈등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등재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는 내용 등 우리가 많이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현지에 출장을 가서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산업유산정보센터 군함도 관련 7개 포함해서 일본에 메이지유신 23개 공업시설 갔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일단 제가 거기 센터를 중심으로 방문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갔지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 ‘강제징용 내용의 정신은 누락되어 있었고 오히려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취지의 전시 내용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저는 일본의 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 합의했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본의 만행을 청장님이 직접 보시고 오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래서 군함도는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리고 나서 주일본 한국대사하고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산업유산 이행 조치 관련 대사관 측의 대응 기조를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회의를 6월 19일 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그날 대사관 입장은 뭐였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일단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당연히 따라야,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받은 것으로……

○김윤덕 위원 국가유산청장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는 일관되게 강제동원 관련 역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군함도를 직접 해설센터를 보고 나서 더욱 심각하게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의 입장을 청취했고 존중했고 수많은 회의를 같이 했고,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안 났잖아요? 청장 입장은 안 된다였고, 그렇지요? 강제노동을 기술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상의 주된 소속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자문적인 내용과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이……

○김윤덕 위원 청장님, 세계문화유산 관련된 내용을 청장이 자문하는 역할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현재 위치는 그렇게, 외교적인 협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국가유산 관련된 또 세계유산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유산청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그렇지요. 3개 과가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더군다나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고, 그렇지요? 군함도 등 세계에 그것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유산청장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유산청은 이 입장인데 그걸 왜곡시켜서 외교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유산청장이라면 담당 장관 및 공무원 해임 요구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동원, 강제노동,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참담하고 비참한 것들이 2015년 약속된 걸 지키지 않았다, 내 눈으로 봤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못 한 건 저희 불찰입니다.

○**김윤덕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 못 한 게 불찰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항의하거나 발표할 생각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마침 메이지산업이 제출되는 게 올해 연말까지고 사도 광산은 내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최대한 노력 정도가 아니고요. 청장님,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일본 군함도에 가서 2015년 약속한 그 사항을 일본이 전혀 지키지 않았더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청장이 보다 분명하게 그 직을 걸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 학계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피해국과 가해국이 합의 안 하면 된다는 유리한 입장이 있는 조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겠다 그렇게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성사가 안 되면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의 실무 책임자와 장관 이런 사람들의 해임 요구를 할 정도로 요구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고 외교부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유네스코 한국대사한테도 꾸준히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분도 결국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머지 부분이 잘못 왜곡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저희 본연의 충실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윤덕 위원** 국가유산청이 외교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이 문제를 총괄하는, 정책적 내용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처음 말했듯이 외교부 말씀 자료도 유산청이 써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맞고, 마치 무슨 외교부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의 세계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되어야만 하는 내용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산청장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공식화시켜서 이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마지막 퇴임 선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면, 이 나라의 정부가 친일, 일본에 예속돼 있는 그런 정말 무지 창피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책임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청장님, 지난해 유산청과 본 위원이 함께 13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국가유산기본법을 발의했고 그 법안이 무사히 통과가 되면서 올해 5월 16일에 문화재청이 유산청으로 발돋움을 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60여 년 넘게 일본 방식의 문화재 유산의 표본을 써오던 것을 저희가 12개 모법 전체를 뜯어고쳐서 이번에 백년대계 우리 유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께 들으면서 국가유산청이 이제 새롭게 개칭한 지가 다섯 달 남짓 됐는데 아마 유산청이 어떠한 범위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고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별 혼란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지난번 우리 문화재청은 과거 우리가 전승받아 온 문화유물들을 관리하고 전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끼고 지켜야 할 것들을 찾아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현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9월 18일 추석 때요 뉴스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1970년대에 출시된 모 업체의 바나나맛 우유 이거 저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국민들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가 그냥 똥똥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조선 백자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삼아서 디자인을 했고 이 업체가 무려 반백 년 이상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왔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이 디자인을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실제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국가유산기본법을 발의할 때 오랫동안 우리 문화계 유산을 관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과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유산인가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하셨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새로이 바나나맛 우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은 모나미 볼펜, 대전의 성심당

뺨처럼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오랫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좋아해 오시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등재할 수 있느냐라는 새로운 질문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내보내면서 본 위원도 이런 걸 무슨 문화재 유산으로 만들어라고 오히려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항의하시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응답이 굉장히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에서 이게 새로운 관점으로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 함께 누리고 공유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 줄 소중한 유산으로 다시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좋은 반응들을 주셨어요.

청장님, 이 바나나맛 우유 뉴스 내보낼 때 제가 청장님의 의견을 사실은 한 줄 좀 여쭙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그때 좀 주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유산청장이 여기에 나설 일인가 아닌가를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 동일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반응이 좋아서 나설 걸 그랬습니다.

○배현진 위원 안타까우셨지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유산청이 앞으로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타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가유산…… 지금 자연유산도, 아까 산양 문제 저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런 것 포함해서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다시 정립할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우리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 주면서 국민적 감동을 줬던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사상 첫, 세계 첫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진짜 피겨스케이팅 여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8년 그 IMF 어려웠던 시절에 US 여자오픈이었지요, 박세리 선수가, 상록수 배경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샷 하나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무 위로를 받으셨는데 그 골프채 등등 저는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더 남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산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이것들을 설계해 나가기 위한 구조적인 전략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국가유산청이 말씀한 대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이기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생가 복원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많은 그러한 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그동안, 저희가 천연기념물만 관리하던 그런 조그마한 과에서 유산국으로 확장이 됐고 또 근대문화유산, 거기에 등록 예비 문화유산까지, 바나나 우유까지 포함한 이러한 광범위한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서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량에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조직을 더 잘 재편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예산과 인원을 증가해서 국가유산청이 정말 이제는 과거를 그냥 보존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바로 저희 슬로건처럼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앞장서는 국가유산청으로 가고자 저희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저희가 무려 세계유산 위원국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도 광산 사태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움츠러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전승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지금 저희가 함께 살아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유산의 가치를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많은 부처와의 격벽을 없애고 또 협의하는 과정,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 어떻게 위치 정립을 해야 하는 그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잘 극복해서 명실공히 우리 K-콘텐츠,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연유산을 비롯해서 인류무형유산, 유형유산을 모두 비롯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감사합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돌솥비빔밥 사태, 뉴스 많이 보셨지요? 중국이 지금 국가유산으로 등록을 하려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분을 하셨고, 그 뉴스가 커지다 보니까 외교부가 얼마 전에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직접 공식적인 항의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본 위원이 수년간에 걸쳐서, 황희 전 장관님 때도 왜 한복 입고 중국 올림픽게임 개막식에 가셨냐라고 항의할 정도로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과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느끼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소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 때 이 부분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주신 위원님들 다 포괄해서 유산청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답을 먼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있자 보니까 참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내조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리 설치고 다니시는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김건희 여사께서 내조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시는지, 서열 영순위 의전하랴, 나오시면 없는 예산 또 배로 사용돼야 되고 대통령 부부 측근들 챙기기 위해서 절차 무시, 규정 무시,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쓰러워 보일까요? 김건희 여사만 나타나면 민원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승진은 물론이고.

제가 청장님에게도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이번에 광화문 현관 김건희 여사께 부탁해서 바꾸세요. 그러면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 스스로가 아직 안 됩니다, 그것은.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십시오.

강경환 총장님 앞으로 좀…… 오늘 나오셨지요?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간 좀……

○위원장 전재수 아, 나올 시간을?

○임오경 위원 예.

이쪽으로……

○위원장 전재수 시간을 되게 알뜰하게 쓰시려고 그러시네.

○임오경 위원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강경환 총장입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지요? 주목을 받아 본 적이 없지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통문화대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강경환 총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2024년이지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은 최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다 받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감사 결과를 파악해 보니까 교수들의 외부 강의 신고 미준수, 겸직 신고 소홀 등 복무기강 문제가 심각하던데, 맞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아닌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24년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를 전통문화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 실시했지요, 총장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갑자기 왜 하셨어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일부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준수하고 미흡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전통문화대학교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위에서 복무기강 문제 심각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신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어……

○임오경 위원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일부 교수들이……

○임오경 위원 일부를 인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총장님이 일부를 인정한다?

전통대 교원들이 외부 겸직을 하거나 외부 강의를 할 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
니다. 그렇지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전혀는 아니고요. 감사에서 3개년간의 강의 신고나
겸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임오경 위원 지난 감사를 통해서 전임 교원 36명 중에서 26명의 교원들이 겸직허가
를 받지 않고 외부단체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었고 한 교수의 경우 최대 12개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총장님의 답변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지……

○임오경 위원 답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총장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교수들이 충분히 지켜야 할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교수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교수들이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을 잘 지킬 수 있도
록 교육을……

○임오경 위원 그러면 총장님의 잘못은 없다, 교수들이 알아서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총장님은 거기 왜 계세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교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임오경 위원 아니, 교수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 지시해 주셔야 되는 게
역할 아니십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임오경 위원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총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셨잖아요.

교수님들이 외부 자문, 강의 뛰느라 바빠서 수업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3000만 원 이상의 외부 강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황권순 기획조정관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전통문화대의 이런 기강 문제가 최근에만 벌어진 일입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일부 교수님들의……

○임오경 위원 아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3년 치만 감사를 했지요, 자체 감사를?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

○임오경 위원 앉으세요.

이럴 경우 10년 치를 봐야 할 텐데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감사를 축소한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10년 치 자료를 받아서 국가유산청 대신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이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다 썩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교수는 그간 외부 활동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외부강의 미신고 42회, 겸직허가 5회를 위반했으며 또 다른 교수는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서 미신고한 것만 80번에 이릅니다.

강경환 총장님, 어떻게 절반이 넘는 교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당수령 아닙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10년간의……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또는 저희가 좀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2억 2000만 원을 받은 교수 같은 경우 거기에는 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억 8000이 10년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집행과 정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은 6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임오경 위원 그러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러면 10년간에 6000만 원이면 사실 1년에 해 봐야 채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임오경 위원 600만 원밖에 안 된다? 총장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1년에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오경 위원 총장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원까지 강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너무 과한 건지 여부는 좀 다르게 볼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오경 위원 총장님, 저희는요, 업무추진비 9만 7000원 썼다 그래서 300회 이상 압수 수색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게 답이라고 저한테 답변하고 계십니까? 총장님, 한번 압수수색 들어가 봐야지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세요? 위반 자체를 하신 것에 있어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특정 교수들은

개인 연구를 수주하여 학교 자산인 질량분석기, 엑스레이 회절 분석기, 만능 재료 시험기 등을 사용해서 용역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임오경 위원** 개인 연구에 학교 기자재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 이득을 취한 특정 교수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하고 관련 연구 예산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감사 결과 보고서에 학생들의 학습 일수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지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있었습니다. 확인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우리 의원실은 자료를 받아서 다 확인했는데 총장님은 못 보셨어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저도 감사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난 10년간 교원들이 외부 강의, 겸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은 상당히 침해당했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또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원들에 대해서 강경환 총장은 적당히 무마시켜서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청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이것 솜방망이 처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내부적인……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시한 것 아니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청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 해당 교원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시고 일벌백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경환 총장님, 교육자로서 청렴하고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되어 줘야 할 교원들이 위반을 하고 보여 주기식 결의대회 퍼포먼스로써 통치려고 하시는 이런 모습에 저는 진짜 학생들에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탈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학교 내에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 국립대학교 전통대학교를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미지 실추시키지 마시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유념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국가유산청 청장님은 국가유산청은 전통문화대 교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국민의힘의 원주갑 출신 박정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최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국가유산청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가 회의가 들고, 너무 업무가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출범을 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그 이전에 문화재청장으로 언제부터 재임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2022년 5월 13일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2년 5개월째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제법 된 거네요.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돼서 확대 발전된 이유가 청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뀐 게 제일 큰 건데요.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를 재화 취급하는 그런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갖고 있다면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등하게 만드는, 바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다음에 무형유산까지 아우르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이 그동안 규제와 여러 가지의 제약만 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꾼 것이 아마 국가유산청의 새로운 창설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여러 질문 중에 보니까 답답한 게 많은데 지금 정원이 아까 업무현황보고 주신 것 보니까 1057명 이 정도로 돼 있어요. 문화재청 당시 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서요 아직 거의 한 1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늘고 있고요.

○박정하 위원 확대된 것은 열 분 정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 계속.

○박정하 위원 그래서 업무는 다 받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다 안 와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연말까지 저희가 수시직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청장님 즉 답변 중에 보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은 많이 분류를 해 놓고 조직은 갖춰 왔는데 인력이 조금……

○박정하 위원 인력과 예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산은 저희들이 있는 범위 내에서 쓰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되겠지요.

○박정하 위원 예산 보니까 금년도입니까, 내년도 1조 2000억이나 되는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1조 3700억입니다.

○박정하 위원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많은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데 이렇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 예산의 70%는 다 지방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정비, 복원에 다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거의 없고요. 다 내려보내서, 다시 말해서 화재가 나거나 또는 멸실이 됐을 때 그것을 새롭게 복원해 줘야 됩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인력, CCTV 그런 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다 내려가는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제법 많은데, 물론 내려가는 예산이 있고 직접 관리 못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그렇게 분배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이기현 위원님 산양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먹이 주는 것 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자연유산국이 처음 신설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출범하고 그 이전에 법이 바뀌어서 준비를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지요. 그런 것 준비 안 하고 그냥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바뀌고, 아직 인력 다 안 왔습니까마는 인력 늘리고 국으로 나눠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1057명이나 계신 분들이 과연 청장님을 얼마나 제대로 보좌하고 계신지 저는 의아해요. 그래서 아까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께서 훈민정음 해례본 소재지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어디 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에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국가에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최근에 확인해 보신 적 없지요,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추가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배 모 씨, 국가유산청에서 최근 언제 접촉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압수수색한 게 작년으로 기억하고 올해 봄까지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일단 연락 자체를 거부합니다.

○박정하 위원 어찌 됐건 이게 성의가 있고 해 보려고 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셨는지 물어봐요. 봄까지 접촉하시고 그다음에 없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그게……

○박정하 위원 접촉, 직접 가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말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무조건 1000억을 주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아니, 만나서 해결의 문제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유산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 모 씨는 올 초에 접촉한 것 외에는 없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두 번째 여쭙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환경청에서 기후대책 관련해서 댐을 만들어요. 그 댐을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규(argue)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청이 없어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어찌 됐건 간에 지자체나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13개가 됐든 14개가 됐든 댐을 만들어요. 그리고 계획이 잡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각 제반시설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로도 놔야 되고 거기 계신 분들 이동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청이 없어서 그냥 놔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국가유산청은 이렇게 큰 기간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 이전에 환경부에서 계획이 잡혀 가지고 진행이 되면 요청이 없으면 그게 되든 말든,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서 설계가 돼서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가서 ‘이 안에는 문화재가 이렇게 있고 천연기념물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의견 제시하려고 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요청이 없어서 안 했다고 보다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물론 직접 나가서 하지 않았습시다만 결국은 그것은 저희들의 허가 사항입니다.

○박정하 위원 허가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허가사항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청장님 예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느냐, 나한테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얼마나 잘 수행하시는지를 여쭙보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댐이 다 계획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하셔야지 요청이 없어서 나 몰라라…… 그리고 아까 PPT 띄워 놓은 것처럼 공문이 이렇게 이렇게 오갔는데도 답변 자체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내놓으면 여기 1057명이 뭐 하러 근무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이기현 위원님 산양 얘기하셨는데 그것 먹이 주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수달 관리는 어떻게 돼요? 수달이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천연기념물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천연기념물 관리하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관리 주체는 우리 국가유산청이고, 이것 역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관리는 다 지자체에 넘겨 났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환경보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멸실동물로 환경부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하고 있고……

○박정하 위원 협업이 어느 정도인지 이따 제가 보충질의 때 여쭙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청장님이 일하시는데 그 적극성이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게 인력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라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대신에 맨날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말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국가유산청을 만들어서 일하시게 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왜 우리가 일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지 한번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현 위원 예.

아까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 말씀드리면서 조대익 KTV PD 동행명령장 얘기를 좀 드렸는데 소견서가 왔고 최재혁 당시 방송기획관,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이지요. 이분도 지금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대익 P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증이 있다, 어지럼증이 있다, 구토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의사의 소견서는 그렇다고 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추적조사를 해 보자, 이게 소견서 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멀쩡히 출근하고 있는 사람이 안 오겠다는 거고요.

최재혁 증인의, 본인 못 오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9월 30일 날 진단서를 하나 끊어 왔는데 9월 30일 이후에 체코 순방 장거리 따라가지요. 요통입니다, 요통과 방사통. 요통은 허리가 아프다는 거고 방사통은 아픈 부위가 번져서 더 옆이 아프다는 게 방사통의 사전적 의미인데 척추 협착으로 인한 요통이 있다…… 저도 좀 있습니다. 항상 달고 사는 질병이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출석 요구에, 최재혁 증인은 저희가 10월 15일 날인데 14일 날 입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30일 날 진단서 끊어 놓고 15일 날 증인 채택이 돼 있는데 14일 날 입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받아 주셔서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5일 날 오실 수 있도록, KTV 국감 때 오실 수 있도록, 적어도 못 오시겠다고 하면 동행명령장 발부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된 증인 출석의 문제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증인 채택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참고인 김장순 국악인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두 분이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는 강의 일정으로 불출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의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유정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장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김장순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황평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황평우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의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 원래 한 분 더 오실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못하셔서 김영임 명창께서 작성한 글을 지금 위원장께 드렸고 아마 곧 위원석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따 좀 봐 주시면 될 듯하고요.

이제 질의에 앞서서 조금 낯선 개념인데요, 경기민요에 세 유파가 있습니다. 이 유파의 특색을 좀 들어 보시라고 제가 듣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 세 부분이 다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파에 따라서 다 다른 곡처럼 아마 들리셨을 겁니다. 저도 다르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김장순 참고인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김장순 선생님께서는 경기민요 전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김장순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가문화유산 이수심사에서 보유자로 지정이 되지 못했어요. 세 유파 중 한 유파에 속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장순 1997년 안비취 보유자가 돌아가신 후에 문화재청은 후계 보유자 선정을 위해서 안비취 선생 제자인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 3명의 전승교육사만을 대상으로 인정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이춘희 전승교육사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조사 때는 유파와 계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합 암실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정책으로 보유자별로 각자 4곡씩 보유곡을 정해서 전승되던 경기민요의 전승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3개의 유파가 있지만 하나의 유파만 남고 나머지 2개의 유파가 맥이 끊겼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고인 김장순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여기 이런 판단에 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김장순 국가유산청에서는 기존의 문화재 체계에서 유네스코의 유산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고 답변했으나 사실 2009년 국가유산청이 한국국악학회에 의뢰한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음악 분야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이 가장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술연구 중에 경기민요 부분을 맡았던 작성자가 김영운 전 국립국악원장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연구용역도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은 뭐냐 하면 김영운 교수가 경기민요 파트를 연구했고 이분이 또 국가문화유산 경기민요 지정을 맡았던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의 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연구를 맡았던 분이 전통예능분과의 위원장도 맡은 거지요. 맞습니까?

○참고인 김장순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행령 5조를 보자면 1항 3호에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해서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자신의 연구 결과에 맞춘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유산청장이 위원 해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 하나 다시 보여 주시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기피·회피·제척 현황을 좀 보자면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용역이나 이렇게 용역 수행을 하게 되면 위원으로서는 제척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김영운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를 피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김영임 선생님이나 김장순

선생님의 이의가 제기되는 겁니다.

또 화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정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 논란을 다룬 기사들인데요, 이조차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인, 무형유산 보유자로서 지정되지 않는다면 명맥이 끊기는 것 외에도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참고인 김장순 가장 먼저 보유자가 없는 유파는 신규 전승자의 모집부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전통예술은 학생 모집이 어려운 현실인데 보유자가 없는 계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현행 무형유산의 지원은 대부분이 보유자와 보유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수학하던 이은주 선생님 문하의 이수자들도 2023년 보유자 인정 이후 보유자가 있는 곳으로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또한 보유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승교육사를 배출하고 후계를 양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 권한에 있어 이수자를 배출할 수 있지만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를 배출할 수 없는 이은주 유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강유정 위원 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데, 실례지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참고인 김장순 제가 57년생, 예순일곱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리고 김영임 선생님도 일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제자의 명맥이 끊긴다면 말 그대로 이 유파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청장님, 무형유산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심의를 하다 보니 제척사유가 매우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은 무형유산 보전법 시행령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도 청장이 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좀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분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먼저 김장순 참고인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들어 보고 나머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참고인 김장순 초대 보유자 체제 이후 평화롭던 경기민요 종목이 이렇게 다투어 지속되고 국정감사에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뿌리가 뽑혀 하루하루 말라 죽어 가고 있는 이은주, 목계월 유파 전승자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자가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두 유파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존재 이유는 전승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루빨리 보유자 충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무형유산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음악 분야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은 반드시 폐기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도 민요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이렇게 크게 두 파트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 조금 더 전수조사도 해 주시고 또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서 종합감사일 전까지 대책에 대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이런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좀 따져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감사합니다.

○참고인 김장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잠깐 답변 보충드릴까요?

지난번, 작년에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관련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김장순 선생님 나오셔서 하신 것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 김영운 위원장의 제척사유는 저희가 법률자문 내용의 결과 범무법인과 정부법인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차제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그 점수 결과를 갖고 그냥 심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되거나 전혀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경기민요가 4곡씩 전승 유파가 있고 보유자를 인정한다는 건, 사실은 1975년에 경기 12잡가를 전곡 전승 대상 지정한 이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저도 말씀하신 법률검토 살펴봤는데 10개 중에 경기민요는 김영운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맡았다라는 건, 이 경기민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절대적이라는 것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2012년에도 한번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의 제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유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유파를 인정하는 종목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장순 선생님 나와 계시듯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을……

○위원장 전재수 그런데 다양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인정을 하게 되면 무슨 예산이 더 든다거나 무슨 법령을 위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인정하지 않은 것을 다시 인정으로 바꿨을 때 다른 종목 쪽에서도 인정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조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것에서 그렇게 유지를 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어쨌든 이게 다양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황평우 참고인님 질의하겠습니다.

황평우 참고인님은 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참고인 황평우 예.

○조계원 위원 그동안 30년 넘게 민간 영역에서 문화재 보호 운동을 펼쳐오셨는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참고인 황평우 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2000년까지 우리나라 역사도시에는 발굴조사 없이 일반 신축공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불합리해서 제가 현장에서 찾고 있다가 발굴유적 신고하면서 2000년부터 우리나라 역사도시, 특히 서울 경주 이런 곳에도 면적이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서 3만㎡, 1만평 이하는 무조건 개발공사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하로도 발굴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저는 외규장각이나 조선왕조실록 이것을 MBC ‘!느낌표’에서 하면서 문화재 환수 운동도 했고요. 청계천 발굴조사할 때 문화재 훼손하던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계속 싸우다가 제가 국정원의 사찰까지 받아가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송레문 화재 때문에 복구하고 또 수리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대대적으로 알려내고 하는 것 등 저는 평생 문화재 보호 운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평생을 문화재 환수 운동, 보호 운동을 하셨다고 하니깐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제578돌 한글날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 26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방송 인터뷰 등 많은 주장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례본 상주본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황평우 저는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문화재청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조건으로는 절대 환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이 이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형사범으로 몰아갔고 그다음에 또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조사하러 갈 때 전문위원이 굉장히 진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호들갑 떨면서 이것 1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배익기 씨는 1000억 원 이상 내놓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것 조사하러 갈 때 차분하고 진중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했는데 또 형사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배익기 씨는 지금도 10분의 1, 1000억을 내놓라 아니면 청이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방송이나 여러 인터뷰에 나오면서 배익기 씨를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처음에, 그때 당시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배익기 씨한테 사과하고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지금 제가 전문용어로 하면 프로파일러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감성을 가지고 호소하든,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접근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범단속반으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계원 위원 해례본 소장자 배익기 씨라고 밝히셨는데요. 그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황평우 예. 자주 가고 제가 또 방송에 출연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하게 하고 많이 설득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사건은 언제부터 알게 되었고……

○참고인 황평우 처음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집에도 가 보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도 자주 가고. 또 다들 모르고 계시는데 배익기 씨가 현장에 가게가 두 개예요. 그런데 다음 것은 전혀 안 가더라고요.

○조계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참고인님은 접촉이 가능하십니까, 그분하고?

○참고인 황평우 그런데 저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접촉할 수 있었지만 배익기 씨한테 가능하면 자극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좀 더…… 제 경험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극하지 않고 조금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가 일부러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협상 상대방부터 바뀌고 협상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분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참고인 황평우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최근 TV에서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전 단체 대표가,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요. 국가유산청은 반출 이후 뒤늦게 7월 30일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까지 가서 실물감정을 하고 8월에 비로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유산청의 전형적인 뒷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인 황평우 사실 이걸 제가 제보를 받고 몇몇 의원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까지도 계속 국가유산청에서 절대로 현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받기로 담당 변호사가 또 그분이, 불법 반출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가짜를 팔았기 때문에 절대로 현장감정을 안 하니까 나는 이걸 수 있다라는 그 논리를 편다는, 재판에서 논리를 편다는 것을 알고 이거 현장감정을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감정위원 출장비 팔구백만 원이 없어서 출장을 호주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19일 날, 몇 달 안 됐지요. 몇 달 전에 CBS 김현정 씨에서 불러서 제가 나가서 이거 왜 못 가냐 이래서 왜 감정료 이 출장비가 없어서 못 가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7월 30일 날 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말을 하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국가유산청에서는 감정 안 가고 그 사람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감정을 가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특히 호주 측에서 지금 이게 진품이나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잘못하면 외교 문제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게 호주에서는 이걸 진품으로 사인하고 받았는데 지금 그분은 가짜를 팔았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호주에다가 가짜를 팔았다고?’……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반 이상이 진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도 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것은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될 게 아니라, 물론 사범단속반이 자질도 없지만 그 위의 과장, 국장, 그 위의 선까지 정말 무책임하고 외교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문화재사범단속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한 국감 자료에는 도난문화재 회수 실적으로 지난해 0건, 올해도 0건입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유산청의 도난문화재 회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황평우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목록에 보면 1번이 있습니다. 그게 인왕상이라는 목조 조각이 있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전에 잃어버렸다가 소장자가 모르고 있다가 자기도 어디서 구입을 했는데, 경남 진주입니다. 거기서 팔려다가 보니까 이것은 도난문화재라고 해서 작년에 신고를 했어요.

○조계원 위원 자기가 자발적으로요?

○참고인 황평우 예,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직원 한 명이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을 기소를 해 버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디서요? 문화재청에서요?

○참고인 황평우 예, 문화재청에서요. 그분이 교장선생님 출신인데 이제 퇴직한 분인데 기소되어 있어요.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억울함을 너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꽤 유명하신 분인데 도난문화재를 기증했거든요. 문화재청에서—전 청장일 때입니다—기증식까지 열어줬어요, 이분은 기소 안 하고.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수사한 사범단속반이 자기가 공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로 해 가지고 그 사범단속반 직원까지도 기소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범단속반 직원은 다른 부처로 발령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사범단속반은 수사를 하고 국민들 문화재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원을 고소하고 또 그다음에 자진신고한 사람을 또 기소하고, 이런 자질 가지고 무슨 도난문화재를 회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0이지요, 올해 0이고.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제로가 되는 거지요. 저는 문화재청의 사범단속반은 정말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문화재사범단속반의 핵심적 자질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참고인 황평우 첫째로 이 사범단속반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직업에 대해서 자기는 뭐, 제가 실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좀 밝혀야 되겠는데 이기현 의원실에 와서 이분들이 조사하는데 심지어는 ‘나는 4년만 하고 다른 데 갈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범단속반입니다.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질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2012년에 발굴유적을 현장박물관인 육의전박물관으로 개관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최초였으며 우리나라 언론과 심지어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도 소개가 되어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개관 당시 요즘 행정으로 보면 참고인께서 적극행정을 펼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참고인 황평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발굴유적은 전부 훼손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해외 답사나 여러 가지 답사를 다니면서 이게 너무 아쉬워서 좀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현장박물관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주로 가 본

테가 그리스 아테네나……

○조계원 위원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육의전박물관.

○참고인 황평우 저 아이디어를 아테네 박물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아테네 박물관은 전부 토질이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장을 가봤더니 완전 부식이 되고 있어서 저것을 부식 안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고 또 중국도 답사 갔다 왔는데 현장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줬고 건축주가 동의해서, 건축주가 절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저걸 만드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에서 8층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저 박물관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종로2가 한가운데 한 층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자고 하는데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조항을 써 가지고 다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박물관 운영하려면 학예직을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다 벌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벌어서 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잠깐 모 박물관의 관장으로 가 있으면서 돈을 벌어서 학예직을 채용하고 운영했는데 그 직원도 지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강제로 문을 폐쇄해 버립니다, 저를 쫓아내고.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종로구청 기록에는 제가 무단점유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리고 이 육의전박물관이 우리나라와 또 지금 현재 서울 시내 공평유적박물관, 서울시청 안의 박물관, 이 박물관의 시초거든요. 이런 시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황평우 건물주가 아예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황평우 참고인님,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적이라 답변은 가급적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현재 개관을 통한 건축주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행정이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종로구청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국가유산청이 문제입니까?

○참고인 황평우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이 해야지요. 국가유산청이 종로구청을, 지자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청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 8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아니, 국가유산청을 늘리면서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 왜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그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안 만듭니까? 완전히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육의전박물관이 현장박물관이라는 우수한 사례이고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초의 사례임에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따가 청장님께 남은 질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유산청에 지금 문화재 관련 위원회 있잖아요. 본인도 위원이셨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문화유산, 문화재 관련 6개 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수백 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인 황평우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오전에 모니터를 보니까 강유정 위원께서 왜 임진왜란에서 ‘왜란’ 뺐냐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까지, 이분은 언론에 워낙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약 한 10여 년 정도 문화재위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가장 교과서에, 친일 교과서나 이런 것 만드는 데 그것 했던 최 모 교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뉴라이트보다 더한, 정말 왜라이트들이 문화재위원회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고,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제대로 알리는 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제재 좀 하시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참고인 황평우 현재 업체와 연결된 위원들하고요 문화재 훼손에 관여된 위원, 문화재에 대한 전공이 전혀 없는 위원 그다음에 특히 공무원 출신 위원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청의 입장만 대변하는 문화재위원들, 그다음에 여야 위원님들은 아마 이 말씀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조계종의 스님들이 너무 문화재위원회에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블랙리스트 만들던 사람도 지금 문화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까지요?

○참고인 황평우 예.

○조계원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청계천 복원과 발굴조사, 4대강 문화재 훼손 등에 반대 운동을 하시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임기 때 많은 미움을 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나요?

○참고인 황평우 당시에 서울시장의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청장님을 불러서 황평우는 문화재 전문위원에서 무조건 잘라라라고 했던 걸 제가 직접 증언에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저 사찰한 게 아마 2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심지어는 저를 술버릇부터 무슨 여성 관계까지……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지금 몇 분째……

○위원장 전재수 예.

○참고인 황평우 그다음에 학계와 모든 기자들을 동원해서 저를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고발 사주가 아니라 칼럼 사주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궁능문화재과의 조 땡땡 사무관을 저의 모든 사찰 책임자로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증인 답변을 잠깐 중지시켜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그만두시지요. 저희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계원 위원 왜요?

○신동욱 위원 아니, 개인의 민원을 무슨……

○배현진 위원 증인, 답변을 간결하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세미나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참고인 황평우 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신동욱 위원 아니, 중요한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요. 이게 뭘니까?

○배현진 위원 중요한 얘기면 압축적으로 하셔야지요.

○위원장 전재수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조계원 위원 청계천 문화재 거기가 발견됐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전재수 그래서 좀 간략하게……

○조계원 위원 그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 가지고 사찰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원래는 참고인 질의시간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계원 위원 지금 49초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5분인데 충분히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제외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저 30초만……

○위원장 전재수 50초 남았으니까……

○조계원 위원 아니요, 지금 제 발언시간인데 저 끝나고 하시지요.

○배현진 위원 잠시, 30초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질의 도중에 무슨……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50초 남았으니까 마저 마무리하고 의사진행발언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참고인 황평우 그리고 4대강 반대도 계속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 나중에 4대강 반대까지 하셨군요. 그러다가 사찰을 당하셨고. 사찰을 당했을 때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요, 조 모 씨가,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황평우 당시에 궁능문화재과의 조 땡땡 사무관인데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미안했었다’ 그래서 ‘뭐가 미안했었냐’ 그랬더니 ‘그냥 다 미안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을 통해서 모든 저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국정원에서 취합을 하고, 그 페이지가 210페이지 정도 되는 국정원 사찰 기록을 제가 정보공개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현재 문화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현재도 문화재위원으로 되어 있다?

○참고인 황평우 예, 올해 선임받았더라고요.

○조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발언 고맙고요.

청장님, 이따 또 따로 물어볼 텐데 일단은 육의전박물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다시 오픈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황평우 참고인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도 정말 우리 문화유산 이쪽에 활동하신 것 이력 저희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노력을 익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전박물관은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소유주가 이것을 폐쇄하는데 저희가 강제 운영시킬 법적 근거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라든가 종로구에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이분이 또 최근에 이 건물을 경매로 내놨다는 그런 것도 제가 입수를 해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을 새롭게 운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조계원 위원 예, 이왕 말씀 나왔으니가 문화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것도 말씀드리고 양의숙 건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의숙 고미술협회 건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늦게 간 건 맞는데요. 그것은 제가 직접 그 공문을 확인하고 했을 때 이게 경찰청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검찰청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만 갔다오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잠깐 시간을 좀 끌었던 제 기억이 나고……

○조계원 위원 경찰청하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저는 당연히 저도 오랫동안 문화재위원 생활을 했고 이것은 반드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감정을 해서 회수를 하든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가 방기하거나 시간을 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시점이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문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유산위원회에 문화유산분과, 무형분과, 자연유산분과로 바뀌면서 인원은 위원은 100명, 전문위원은 20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황평우 진술자께서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역할을 하셨고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 위원들이 100% 다 완벽한 검증과 완벽한 걸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었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청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시행했던 것이 문화재위원들이 검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다른 서울시, 경상북도 또는 시도, 지자체 검직을 하면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을 겸임하게 되면, 제척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검직을 했거든요. 그 조항을 없애는 데만 해도 한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새로 된 것이 아니라 2년 전 것을 저희가 위촉을 1년 전에 했는데 다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재위촉이 된 상황이라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이 부분을 더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계원 위원 한 번 위촉을 하면 다시 해촉은 안 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해촉 사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해촉 사유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금 제가 그건 정식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찰에 관여했고 보고 줘서 자료까지 다 있는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출석하여, 출석하신 분의 뭐라 그럴까 이런 의견만으로는 개진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근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원실에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보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질의해 주신 조계원 위원님 그리고 황평우 소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과정 내용 가운데 내용상 이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단순히 길어서 저희가 그만하시라는 요청을 드렸던 게 아니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분 간에 마치 속삭이는, 대정부질문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집중하기도 좀 힘든 게 있고. 실제 이 참고인·증인 신문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간사님들이 지금 잠깐 협의하러 나가신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30여 분이 흘러가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증인·참고인 신문을, 아까 강유정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질의해 주셨는데 김장순 참고인께서 일부러 써 오시지……. 읽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하실 말씀 진짜 많으신데 압축해서 오신 거거든요. 어떠한 저희 간에,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물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제가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는 질문·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한 시간을 내서 가지고 참고인들께서 와 주셨는데 하실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가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싶은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으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질의시간 맞춰서 한 거예요.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동욱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법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취지로 운영된다면 이렇게 답변 제외한 5분 이것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30분이든 3시간이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발언의 내용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즉 위원님들의 질의야 어떤 식의 의혹 제기든 저는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어떤 전혀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국정감사장에서 일방적으로, 저분이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조계원 위원 이따가 제가……

○신동욱 위원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제도 우리가 아쉽지만, 저도 정말 아까 국악인 나오신 분들 얘기 참 귀담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 신문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다음은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해 주신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참고인들 중에서 굉장히 귀한 시간 쪼개서 멀리까지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은 위원장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파격적으로 참고인·증인들의 발언시간은 우리 국회의원 발언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조차도 정해진, 준비한 그런 질의자료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정감사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아무리 증인·참고인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느 정도 시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너무 이게 다른 위원들의 발언시간까지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위원장이 잘 유념해서……

○김승수 위원 이번에 두 분 참고인 증언하면서 벌써 한 40분 지나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위원장이 잘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청장님, 지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왜 웃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럴 일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두 번이나 하셨는데, 오전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말씀해 주시면……

○민형배 위원 김건희 여사가 다녀오지 않았는데 원칙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소통 자체가 중단돼 있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더라고요. 거짓말하신 거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보스턴 미술관 홈페이지도 한번 봐 보세요. 저기 보면, 올해 4월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미술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은 사리와 사리구를 분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리와 사리구를 둘 다 미술관에 남겨 둔다’, 아무 노력 안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종단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그걸 좀 줘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런, 보고한 걸 주지 않으셨고 외교부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안 주셨어요. 둘 다 거짓말하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맨 먼저 사리만 가져오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만 가져오자고 한 게 처음에 기본……

○민형배 위원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제가 너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리라도 먼저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우선 협상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민형배 위원 김건희 여사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전혀, 그건 진짜 관계가 없는 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 갔을 때……

○민형배 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어떤 논의도 한 게 없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감장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원래 문화재청 오실 때 추천인이 누구였습니까, 문화재청장으로 오실 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요.

○민형배 위원 어디서 연락받으셨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용산에서 연락이, 청와대겠지요.

○민형배 위원 용산 누구한테서, 대통령실 누구한테서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청와대에 계셨지만……

○민형배 위원 청장님,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 추천을 갖다가……

○민형배 위원 용산하고 이 일과 관련해서 직원들이든 청장님이든 아무도 주고받은 연락이 없다고 지금 그러셨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어디랑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형배 위원 용산 대통령실과 이 사리와 사리구 반환 문제를, 아예 없다고 그러셨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단과 제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종단과……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종단 얘기하지 마시고.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없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예 없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나중에 그것 드러나면 그만두셔야 돼요.

그다음에요 문화재청 보도자료를 보면, 문화재청 시절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의 사리구 반환 관련해서 이렇게 해 났어요, ‘사리만 반환하는 것에 문화재청이 동의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리구에 대한 반환 포기—아까 이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라는 공식 입장으로 인정돼서 사리구 반환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던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다녀온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협의를 했다고 아까 오전에 거짓말하셨는데 보스턴 쪽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공문상으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이천……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근거가, 그러니까 누구 의견 때문에 왜 원칙을 어기면서 어떻게 보스턴 미술관과 연락을 해 오셨는지, 대통령실과 협의나 연락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노력을 했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것 다 정리해서 가지고 국감 끝나기 전에 종감 전까지 꼭 좀 국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정리한 것은 이미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이미 불교계에서는 다 김건희 여사가 가서 우리 사리구 가져왔다고 그냥 대형, 보도자료도 내고 막 행사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형배 위원 지금 청장님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닌 게 아니라 2009년……

○민형배 위원 단서가 그거였는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물꼬를 튼 것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반환 협상을 다시……

○민형배 위원 물꼬를 텄는데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냥 혼자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반환을……

○민형배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보스턴 미술관 가서 2010년부터 계속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걸 제가 와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로서 저는……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13년 동안,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보스턴 미술관이 거짓말로 거기다 써 놔습니까, 중단돼 있고 우리는 거기서 분리 반환 안 된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자꾸……

지난 4월 4일에 상춘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 오찬 간담회 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누가 주최자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주최자는 무형문화재과가 했고 상춘재에서 한 것은 저희가 청와대 관리 권한을 위임받고 추진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행사 주최가 누구냐고.

그런데 왜 계획서가 없어요, 문화재청 행사인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계획서라기보다는……

○민형배 위원 결과보고만 있고 계획서가 없는 이유가 뭘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능 전승자 오찬 간담회는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러세요. 어떤 부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더더구나 김건희 여사까지 오는 행사를 하는데 계획서가 없이 결과보고서만 있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다 정부에서 일해 본 분들 많이 계세요. 왜 이러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오찬 간담회라서 저희는……

○민형배 위원 오찬 간담회를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해요? 누가 참석할지 여사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계획서가 없냐고요. 왜 제출 안 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계획서가 없다는 건……

거기서 공연이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간단한 전승자……

○민형배 위원 간단한이 아니던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두 분이 하셨습니다, 두 분이.

○민형배 위원 그게 왜 간단한 거예요? 두 분이 했으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게 식사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했던 겁니다.

○민형배 위원 저것 봐 보세요. 5분도 안 된다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러니까 지금 KTV나,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문화예술 영역까지 다니면서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전승자들이 공연하는 것은……

○민형배 위원 지금까지 이런 행사 하면서 연주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요청해 봤는데 10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는 전승공예에 관해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초청 때,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행사 할 때 저희가 불러서……

○민형배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만 하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건 다 해 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언제 해 와요? 그 전에 해 온 적이 없다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난번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할 때도 직접 불러서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이게 지금 전승, 그러니까 참석한 분들이 전혀 달라요. 외국 손님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여기 당사자들 불러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분들의 제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분의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간담회가 목적이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연이 목적이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간담회에 기능·예능 보유자들 격려 차원에서……

○민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김건희 여사가 옵니까, 간담회 하는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날 격려 차원에서 불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격려하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를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이러지 마세요. 이러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 다 통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행사인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기능·예능 보유자들의……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한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었고 격려 차원에서 자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왜 와서 연주까지 하나고요. 국악계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가지고 장난치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보유자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둘이 와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간단한 연주였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보유자를 위해서 연주를 했던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생님들 앞에서……

○위원장 전재수 자, 정리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전통문화대학교 총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학내 문제 짚막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학내 문제로 징계받은 교수님 계시지요, 권 모 교수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정직 3개월 받으셨네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분 징계 사유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취재가 아니고 징계 사유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걸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학생들을 집안 정리, 김치 담그기, 지인 음식상 차리기, 밥하기, 설거지하기 이런 것 했고 또 청각장애 학생들한테는 몸이 불편하면 장애 관련 학교 가야 한다 이라고 또 무슨 장애인 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했는데 대체 그 학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서 남편 지인 음식상 차리기까지 학생들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오랫동안 그런 갑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미술공예학과이다 보니까 학생과 교수 간에 도제식 실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촉 면이 좀 깊고 넓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거라고……

○신동욱 위원 조사는 충분히 되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10년이면 한 분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래서 최근에 2023년도부터는 재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갑질이나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또 외부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경우에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정직 3개월 징계 이걸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건 국가유산청에서 감사를 해서 중징계 의결이 와서 내부 징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교학처장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사실 외부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계 사유에 대한 나름의 어떤 경중을 따져서……

○신동욱 위원 유산청장님, 혹시 이 사건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보고받았고 감사……

○신동욱 위원 그런데 정직 3개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고 징계하신 건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이 더 있어서 그것은 추가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추가로 하기로 해서 먼저 정직 3개월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정직 3개월 마치고 돌아가면 또 학생들한테 강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래서 그 추가적인 걸 다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신동욱 위원 추가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다시 정직을 또 재의결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직 3개월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 수사가 끝났고 검찰에 넘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징계할 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1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스러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곳이니까 각별히 좀 챙겨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까 김재원 위원님 한복 다시 갈아입고 오셔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저도 의문이 있어서……

지금 경복궁 주변에 한복 빌려주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신동욱 위원 그래서 거기 단속을 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단속하지 않고, 한복을 입고 무료 입장했을 때 무료 입장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고요. 권한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한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전통한복에 너무 맞지 않는 기준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좀 정비해 보고자 하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올해 계획이었고.

그래서 아까, 잠깐 더 보충드리자면 무조건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오히려 전통한복을 더 살리고, 거기에 대한 당근을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경쟁을 이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직장이 그 근처에 있어서 종종 보는데 물론 매우 심각한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가 좀 불명확하고 어디까지 한복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개량한복과 퓨전한복과 전통한복,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 우리 경복궁 주변의 대여점이 갖고 있는 것은 퓨전한복이라는 약간 국적 불명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새롭게 변화된 한복인데 이것을 외국인들이 그냥 그대로, 아까 거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자기 SNS를 활용해서 전 세계로다가

한복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전통한복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복의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국가유산청의 생각이고 또 한복 생활이……

○신동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보면 걸그룹 같은 분들도 많이 입고 외국 나가시는 경우를 보면, 지금 화면이 나갑시다만 사실 국가유산청에서 주최한 행사에 뉴진스가 저런 일종의 퓨전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저런 부분들까지 보면, 물론 취지는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를테면 약간은 비슷한 형태라도 우리 한복을 세계에 많이 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경직되고 과도하게 운영이 됐을 경우에 혹시 우리 관광 오신 분들이 그래도 잠시나마 한복을 체험하고 또 느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좀 잘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도 국가유산청 출범과 동시에 이것을 화두처럼 던지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또 그게 쉽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고 전통한복이 갖고 있는 것을 더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외국인들도 그걸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경복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 중에서 일부는 전통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쪽 한복이 더 아름답고 우리 전통의 한복이다라는 걸 자꾸 공유하고 이렇게 옆에 확산시키는 그 작업이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너무 네거티브로 가지 마시고 포지티브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청장, 환경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14개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계획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의 역할과 임무, 최종적으로 허가 부처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환경영향평가 플러스 저희의 문화유산 평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박수현 위원 이 14개 대상 지역으로 발표됐던 대상 지역 중에 국가유산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또 자연유산 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미호종개가 산포하는 지역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천댐, 지천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지천댐.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 한 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나머지 문화유산은 조금 더 저희가 준비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수현 위원 이 계획이 작년 5월부터 추진이 돼 왔고 말씀드린 환경부가 7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다음 달 11월에 이게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이에 관련한 허가 부처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문화재청에 환경부가 전혀 이와 관련한 협의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공문상이라든가 거기에 협의를 온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상지 현지에서는 찬성 양반으로 갈려져서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지역사회가 완전히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환경부가 이런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청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걸 발표를 하고, 또 후보지 발표를 11월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후보지이지만 이것이 발표되면 그대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유산청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역에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주민 갈등을 일으켜서 주민 간에 통합이 아닌 분란의 힘으로 지역발전의 어떤 힘마저 뺏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환경부가 무도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산청장께서 분명하게 유산청과 업무협의를 분명히 하고 그러고 나서 유산청의 의견을 들어서 11월 발표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견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부서 차원에서 한 거하고, 저희 국가유산청은 아직 소속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고요.

미호종개라는 천연기념물은 모랫바닥에서 사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향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만 다른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 천연기념물은 좀…… 나무라든가 이런 건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닙니다만.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가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청과 그런 미호종개의 서식 같은 천연기념물, 옮길 수 없는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국가유산청장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당장 유산청에서 환경부에 그런 유산청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유산청과 반드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반드시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천에 미호종개라고 하는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협의도 안 했는데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호종개라는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국가유산청의 그런 보호 역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있을 때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선제적으로 해서……

오늘 계속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제적 대응 아니겠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의 분명한 의견을 환경부에 반드시 강력하게 개진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오 광산과 구로배 댐 이것이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22년 11월에 발간된 국가유산청 스스로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자료 수집 등 연구’ 이 자료인데 여기에 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요한 부분이니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향후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메이지 유산 그다음에 사도 광산 등의 충돌성이 있는 근대유산 등재 추진 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근대산업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용역보고서에, ‘반드시’라고 하는 용어까지 강조해서 해 놓은 보고서를 잘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용역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이 이 문제를 이렇게 용역보고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유네스코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등재 1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데, 1단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요구했더니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정보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선제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까지 넣어서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전혀 이 보고서대로 실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것은……

○박수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광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염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아시오 광산과 구로배 댐 이 문제는 2014년부터 언론이 지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는 청장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유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반드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자료제출의 미비점은 아마 그 소통이 조금 안 돼 갖고, 제가 아까 다 들었는데 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건 다 준비가 돼 있는 자료를 못 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는데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현 위원 팬썰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응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만들고 검토하고 내고 의견을 개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게 되면 항상 어떤 부분에서 미약한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고 국회와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국민신탁에 관해서 비상식적인 정관 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 스타벅스는 2009년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고 꾸준히 적극 협력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2020년 3월 5일 스타벅스가 백범 김구 선생의 ‘천하위공(天下爲公)’ 친필 휘호를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해 유산청에 기증한 사진입니다. 휘호 구입비용이 2019년 3·1절, 광복절 기념 텀블러를 판매한 그런 수익금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이 한정판 상품들을 적극 구매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과 국민적 참여로 유물 보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물 카르텔의 충격적인 부당행위가 있었습니다.

PPT 다음 것 주십시오.

국민신탁은 문화유산 신탁법과 정관 그리고 내부 규정에 따라 유물 구입 시에 유물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외부 심의위원회는 유물 구입 여부와 구입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다음 PPT 주십시오.

김구 선생 친필 휘호는 2020년 12월 17일 2차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구매 결정됐습니다. 구매가액 2000만 원입니다. 판매자는 개인으로 조규호 씨입니다. 이 조규호 씨 2023년 8월 10일 사임 전까지 갤러리 문우사 감사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요. 이 갤러리 문우사는 친필 휘호 구매 심의위원 케이옥션 고문 김영복 씨가 2020년 10월 20일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즉 회사 임원이 매입 신청한 유물에 대해서 같은 회사 대표이사가 심의위원 자격으로 구매 여부와 구매 금액까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판매자와 심의 결정자가 같은 회사 임원인 것은 심각하게 이해충돌이지요?

청장,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최근 2년간의 유물 구입처를 확인했더니 총 7건 27점, 1억 9100만 원의 유물을 단 2개의 업체에서만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 제외하더라도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받은 업체만 2023년 말 기준 883개입니다. 그러니까 0.2%의 업체에서만 2년간 구매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심지어 두 업체 구매 관련 심의를 맡았던 외부 심사위원들도 모두 판매자들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서수용, 이동국 심의위원 모두 판매자들과 함께 협회, 연구회 등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윤태석 교수는 김종규 이사장이 박물관협회장 시절 수족과 같이 사무처 운영을 도맡았던 협회 실장입니다. 또한 판매자 김영복 씨도 공영방송 KBS의 'TV쇼 진품명품' 감정위원으로 김종규 이사장과는 학회 및 대외 활동 등을 오래 해 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적절한 유물 매입 과정들이 김종규 이사장의 개입 또는 방임으로 완성된 유물 카르텔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신탁은 국민 기부금 등으로 유물을 구매하지요. 이해충돌로 심의위원회 결정도 신뢰할 수 없고 구매 대상도 이 카르텔 내에서만 고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산청은 이런 행태 알고 있었습니까. 2018년, 2020년 유산청은 두 차례 문화유산국민신탁 종합감사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기관경고 하셨지요. 2020년 감사에서도 3개 업체에서만 3억 400만 원 규모의 유물을 구입한 사실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반복 지적사항인데 어떠한 시정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계속 묵인하고 방조할까요?

아까 이기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의 증인 신청 관련 누설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유산청과 국민신탁은 공생 관계인가, 같은 카르텔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의심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신탁에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는 유산청 출신 전관이 가는 자리입니다. 둘째, 앞서 주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청은 이사장의 실질적인 연임 보장 정관을 보장하고 있지요. 이 내용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민신탁은 유산청의 지갑 역할도 합니다. 국가예산으로, 국비로 집행해야 할 것을 국비 확보가 어려울 때 국민신탁, 그러니까 이 기부금으로 꺼내 썼습니다. 왕릉 잔디깎기기계 770만 원, 2022년 조선왕릉 전동카트 구매, 2023년 창덕궁 문화재 보수용 작업차 구입 2000만 원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신탁의 기부금에서 쓰는 겁니다. 정말 예산이 없었는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그 이유와 관계없이 만일에 이 돈을 꺼내 쓰기 위해서 다소의 강압 또 혹은 두고 보자 이런 말을 누군가 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청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왜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일단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제가 일단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게 산하단체고 그 안에서 작은 규모의 유물 구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타벅스라든가 이러한 기부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많은 자율권을 줬는데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는 이러한 구입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모자라서……

우선 여기 ‘국민’ 이름부터 떼는 방안부터 시작해 갖고 종합적으로 국민신탁 개선방안 마련해서 다음 주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개선방안 부실하면 종감에서 유산청과 국민신탁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개구입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구입은 투명한 절차로 공고를 내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입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이것을 아예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 월단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년씩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 부분에 고미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3연임 6회, 18년이 말이 되는가요? 김건희 여사가 거기 사진에 찍히고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의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다음주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청장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까, 안 그러면 왕조시대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민주공화국입니다.

○양문석 위원 민주공화국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재 간담회에 공연을 하는 경우를 나는 처음 봅니다. 대부분 이런 공연은 수백 명을 초청했을 때 공연하거나 하는데 불과 십수 명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왔을 때 이런 공연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 외교부 행사에도 저희가 그런 무형문화재……

○양문석 위원 이보세요, 외교부 행사 아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서도 하고……

○양문석 위원 참석자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영부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공연자들이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선생님들 모시고.

○양문석 위원 출연료 주셨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출연료는 잘 확실하게……

○양문석 위원 출연료 주셨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별도로 준 적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드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이 제자들을 강제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정승, 판서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진짜?

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데요……

○양문석 위원 오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연을 했으면 공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연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리에서……

○양문석 위원 알겠습니까 아니고 잘못된 거잖아요. 공연을 공짜로 구경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관람료 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자리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앉아 있다가 잠깐 나가서 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세상에…… 이분들이 누구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보유자의 제자들……

○양문석 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들이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전승자들 제자들.

○양문석 위원 전승자의 제자들이에요. 문화재를 불러 가지고 공짜 공연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연 상납시키고. 정상적이에요, 이게? 이게 민주공화국

맞아요? 지금 왕조시대 판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8700만 원짜리 KTV하고 뭐가 다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상춘재 그것은 아무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양문석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행사 총비용 얼마 들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출장비하고 식대비밖에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게 문제지요. 공연 두 개가 들어갔는데 출장비하고 식대비밖에 안 들어갔으면 그 공연자들은 강제로 동원한 것 아니에요? 작게 말하면 갑질이고 크게 말하면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에 사는 청장이 왕조시대 판서질을 한 것 아니야. 이것 아니에요? 그리고 왕비 불러서 공연 상납한 것 아니에요? 이런 나쁜 짓을 해 놓고 계획서도 안 내놓고 그리고 갑질하고 그리고 공연 상납이나 하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상납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양문석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납이라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이수자들과……

○양문석 위원 그리고 끝까지 뻔뻔스럽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전수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양문석 위원 전수자들이 합의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공연을 처음부터 뭘 해 달라……

○양문석 위원 담당 과장 누구예요?

이재필 과장!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양문석 위원 이재필 과장, 영부인 오는 것 몰랐어요, 알았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알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참석자들에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참석자들에게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청장님 주관으로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영부인 오는 것 비밀로 부쳤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대뜸 왔는데 영부인을 앉혀 놓고 공연을 시켜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생들도 아니에요. 문화재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이수자들이에요. 이게 사적으로, 청장이든 영부인이든 대한민국 문화재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유화한 사건 맞아요, 안 맞아요? 사유화한 것이지요?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유화한 것이지요?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 지랄들을. 그대로 찍어 주세요. 이 지랄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유산청 청장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들이 모여서 문화재를 사유화하고 문화재를 불러서 공짜 공연을 시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가 잘났다고 지금 뻔뻔스럽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있어요, 청장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답변은……

○양문석 위원 과장님 답을 못 하잖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양문석 위원 답변을 할 자격이 없어요, 청장은. 공연 상납이나 하는 그런 못된 왕조 시대 판서보다도 못한 놈이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간담회 자리는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간담회 그런 사례 그대로 다 보내 주세요. 지난 10년 내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례 다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례 없으면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위증으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국가유산청 행사 때도 직접 오셔서 하셨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영부인 불러서 공연한 이런 사례 자료 다 보내주세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저도 대한민국 차관을 4년 했던 사람이에요. 역대 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공연 상납과 갑질, 문화재 사유화……

여러분들은 정말 고발의 대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일방적으로 질의만 하고.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간담회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예능 보유자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가유산청 행사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도 하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정당한 보수를 드리고 거기서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조금 편하게 했고,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같이 참석했던 보유자들의 제자들이 함께 오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분명히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기능자, 이렇게 예능자 말고 기능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작품을 놓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연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있던 게 아니고 국가유산청 전의 문화재청부터도 이런 행사를 늘 해 왔던 사실입니다.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오늘 답변하는 최응천 청장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식전행사를 그냥 5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자기들이 제출한 여기에도 2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문화재 전승자들과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무형문화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장이 그런 간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양문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서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상적인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5분 동안 잠깐 공연을 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5분입니까 20분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5분이 돼서, 한 사람 5분으로 기억을 하고……

○민형배 위원 시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5분인지 20분인지가 왜 중요하나 하면 의도적으로 이미 20분짜리 공연을, 그것도 판소리하고 가야금하고 두 개나, 두 분이나 모셔서 저기 앞에 놓고, 간담회장이 아니고 그 간담회장 저쪽에 놓고.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 놔는데 지금 저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지금 양문석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상납이라는 말을 저는 표현까지 쓰지 않겠습니까. 무형문화재분들을 모셔다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연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간담회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5분간 무대 공연이 잠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제출한 여기 자료에도……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고요.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면 저는 이 회의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보스턴 미술관 관련해서도?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주시고. 아니면 좀 시간을 드려서, 잠깐 중단하더라도 시간을 드려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그 행사계획서 있습니까?

잠시만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결과보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행사계획서가 왜 없냐고요?

○위원장 전재수 통상적으로 관료사회에서 아무리 작은 행사라도 행사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참석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불찰입니다.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여기 있는데?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5분인지 20분인지 조금 전에 민형배 위원님하고 양문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아마 이 두 분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을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간담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의견이 나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식사 자리라는 얘기가 식사에 같이 동참했던 분들을……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양문석 위원 본인이 직접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좋아, 됐어요. 간담회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됐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자리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여사가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문화재청장이 하는 행사라고 해 놓고 왜 악기를 들고 오게 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

안 된단니까요, 위원장님. 이 상태로는 문화재청장 앉혀 놓고 회의 계속 진행 못 해요.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잠시만요.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빨리 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청장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도 해명이랍시고 하면서 ‘간담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세 본인이 이야기해 놓고 또 그걸 뒤집어요. 그러면 도대체 제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떤 식사 자리, 누구랑 하면서라고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 간담회 처음에 계획은 뭐였는데,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간담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면 계획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서 없다? 그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의견, 누구랑 식사했는지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민형배, 양문석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전까지 두 분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시는 것 짝 정리를 해서, 청장님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해서 두 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관련 질의가 있으면 정확하게,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 그것도 자료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수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담당 기관중인 나오신 분은 답변하실 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이렇게 답변석에 선 사람들이 답변을 못 하고 주저주저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 하든지,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준비가 된 자세를 가지고 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국립문화유산연구회가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문화유산 검색기, 이게 ‘문화유산 찾아-줌’이라고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국내 문화유산을 점검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요새 새로운 추세가 인공지능으로 하는 AI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이 예산이 한 7000만 원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실제 영상 PPT를 보겠습니다.

국보 1호 남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남대문의 AI 여기를 보면 남대문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게 남대문에 관련된 게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현재는 안 보입니다.

○정연욱 위원 두 번째, 보물 1호 동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동대문입니까? 뭐 있습니까? 뭐 비슷한 거라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원화성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수원화성이 저런 겁니까?

저희가 국보, 고려청자, 백자, 나머지도 다 준비를 했지만 다 비슷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걸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것은 검색의 기본이지요. 복잡하게 나갈 것도 없습니다.

이런, 7000만 원 예산이 당장은 큰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는 아마 외국인들도 이용할 것이고 국내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쓸 겁니다. 이런 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민간 클라우드에 시급한 부분이 우선 투자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없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난 5년간 아마 국가유산청하고 주변 관계기관들이 해서 이런 디지털 관련 기술 활용사업의 예산만 제가 파악한 것만 1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디지털 예산 활용하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AI, AI 이렇게 모든 국정 목표 식으로 지금 모든 영역에 AI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 검색 기능이 기본 A, B, C조차 안 되는 검색 기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유산을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난센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하신 AI 부분 말고 저희는 사실은, 이 AI는 물론 이제 시작한 지가 저희도 얼마 안 돼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른 문화유산 포털이라든가 검색 시스템은 저희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 많은 검색 자료를 가지고 있고 DB도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유산청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 보니 또 그런 것 시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이렇게 내걸고 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기획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아니, 첫 검증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제가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누적이 되면 전시행정이니 뭐 여러 가

지 부정적 평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작 단계부터…… 지금 청장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처음 그걸 검증해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 자체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유산청의 모든 신뢰도가 다 떨어질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의 시작부터, 첫걸음부터 단단히 다져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사리구 문제가 좀 문제가 됐는데요. 사리와 사리구가 같이 하나의 문화재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성물로 보지요. 문화재로 절대 보지 않고 성스러운 물건 그렇게……

○이기현 위원 예, 사리는 특히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사리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리구는 사람이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예술적 가치로 만든 것이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사리구, 사리를 같이 반환받아야 되겠다는 게 문화재청의 오랫동안의 원칙이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리는 사라졌는데 사리구만 발견되는 게 대부분,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리를 친견한 적이 한번도 없고 그 사리기를 조사할 때도 사리가 있는지조차도 저도……

○이기현 위원 죄송합니다, 짧아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리 반환이 합의된 뒤에 그러면 사리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스턴 미술관하고 유산청의 메일을 봤습니다. 3월 2일 날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MOU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유산청에서 보스턴 미술관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협약 초안문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세 달 사이에는 사리가 돌아옵니다. 4월 19일 날 돌아오고 5월 19일 날 회암사에서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가 있고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등장을 하지요.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나서 6월 12일 날 보스턴 미술관이 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리구를 임시로 보내 줄 테니 사리구 압류 면제 및 대여 종료 시 반환에 대한 정부보증 필요하다. ‘니네 안 돌려주면 안 돼. 꼭 돌려줘야 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2일 만에 청이 보스턴 미술관에 ‘그래, 너희들 조건 들어 줄게’라고 했습니다. 큰 원칙이 깨진 겁니다.

사리구가 임시로 오는 것…… 예전에 저희가 외규장각도서 의뢰와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가 된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정도는 왜야 문화재가 돌아왔다고 할 수 있지요. 임시로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아무런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게 제대로 된 반환입니까? 반환 아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는 보스턴 미술관 사리기를 제가 먼저 반환받아야 된다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쪽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 난항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 사리구?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올해 연말 전까지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여러 조항이라든가, 그만큼 보스턴 미술관이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니, 이제 정부보증을 한 거예요. 잠깐 빌려주고 우리가 달라 할 때 다시 돌려줘야 되고 니네 정부에서는 절대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돼……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이기현 위원님, 몽유도원도 같은 경우도 그게 조건이 안 됐으면 들어오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기현 위원 유산청이 오랫동안 지켜 왔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원칙을 어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리구 반환 행사가…… 김건희 여사가 이 사리 반환 행사로, 작년 연말에 있었던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에 5개월 동안 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공덕주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사리구 반환 행사가 이 시즌2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고도 드리고 유산청에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산청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정치적 복귀 이벤트에 활용되어서 10여 년 지켜 왔던 문화재 반환의 원칙을 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원문화유산연구소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기현 위원 23년에 퇴직한 전 소장이 있습니다. 문 모 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임용 4개월밖에 안 된 학예연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청동검 부러진 것 포함해서 철제 유물, 청동기시대의 유물, 철기시대 유물 20점을 보존 처리를 지시합니다, 자기 것을 국가의 돈으로. 불법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시받은 학예연구사가 공무원 연구원들, 자기보다 낮은 공무원 연구원들한테 업무 지시했고 그 공무원 연구원들이 이걸 불법이다, 나라 예산 가지고 개인의 소장품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소장품 자체의 소유 과정도 의심스럽다라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학예사가 ‘그래도 내가 책임질게, 해’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뒤에, 이 소장이 퇴직한 뒤에 공무원 연구원들이, 이 업무를 진행했던 분들이 감사원과 유산청 감사관실에 이 행위가 불법이었고, 불분명한 유물에 대해서 사적 보존 처리를 한 것도 불법이었고 그리

고 이 유물을 어떻게 저 사람이 갖게 됐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보자는 유물의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서 사범단속반에 제보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소장 지시로 공무원들에게 재지시한 학예연구사들만 경고하고 그리고 제보자였던 공무원들에게는 사범단속반에 제보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사범단속반은 사범 처리가 아닌 부당 업무지시인 것 같다라고 회신을 하고 그리고 종결합니다.

이 소장님은 퇴직한 이후에 발굴기관에 재취업하고 또 충북도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위법합니까, 안 위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법합니다.

○이기현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유물을 소장했던 그쪽을 더 확실하게 추적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살펴봐서 만약에 문화유산, 국가유산기본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저희가 고발 조치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이 행위는 문화재청이, 제가 앞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같이 근무했던 선배 또 후배들에 대해서 대단히 온정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물, 유물인데 이게 자기가 소장을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혹시 도굴 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인데 국가 돈으로 수리해 줘, 나 곧 퇴직할 건데’라고 했을 때 문화재청 직원들이 이걸 수리해 줍니다, 국가 예산으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 갑니다.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국가의 돈을 가지고 이것을 수리해 주고 또 반출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조사했던 감사 담당 감사관실 그리고 사범단속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사람이 저희 청의 본래 조직원 출신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2년간, 공모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건 저희가 깊이 통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 그것의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조금, 나중에 늦게 발견된 그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때 늦었습니다만 잘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종감 때까지 처리 결과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청장님, 국가유산 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사진 보면 최근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와 함께 피해 입은 우리 국가유산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유산이 22년도에는 154건, 23년에는 125건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80여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23년도의 경우 3억 7000만 원 정도는 타 사업에서 이·전용을 했고 그다음 24년 경우 10억 원이 발생해서 또 이·전용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청장님, 예산이 매년 이렇게 부족한데 대처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풍수해라든가 자연재해 예산은 저희가 매년 계속 증액을 요청하는데도 기재부에서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런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는 반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진중오 위원 반납을 한다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래서 증액을 안 해 주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늘, 통계에서 일시적으로, 계속 이게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증액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긴급보수 예산은 앞으로도 저희가 증액을 통해서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진중오 위원 그러니까 일단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산 부족 등으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 못 하면 복구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지연으로 인해서 훼손이 더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예산이 더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구가 지연됐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긴급복구 예산으로 안 될 경우는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재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경중을 뒤서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돌봄사업이라든가 지자체를 통해서 잘 협조해서 빨리 끝낼 수가 있고, 여러 단계별보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중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담 조직 신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우리 중요 국가유산인데 여야 관련해서, 저는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노력할 테니 청장님도 조금 더 전담 조직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중오 위원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재춘 단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만나 뵙지는 못하고 제가 성함만 익히 들었습니다.

○진중오 위원 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분이 남북한 동시 등제도 가능하니까 국가유산청이 앞장서서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조해 달라는 전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 보니까 등재 관련해서 한국이 다등재라는 조건에 걸려 있어 가지고 2년에 1건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규정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거의 그렇게 지켜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것을 벗어난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등재의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거나 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공동 등재도 가능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건 등재신청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 준다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전례가 없어서, 물론……

○진종오 위원 전례가 씨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진종오 위원 씨름 종목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씨름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진종오 위원 유일한 사례인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공동등재 먼저 하고 추가로 나중에 등재한 경우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북한이 올해 3월에 등재를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 유산청은 언제 인지하셨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들이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일찍 알고 있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경색이 되고 북한에서 그걸 등재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한 쪽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관계자 및 주변 국가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일정 같은 경우 보면 빠르면 28년도에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0년 되면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태권도 같으면 우리나라 고유의 국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진종오 위원 태권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 쓰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저희 태권도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가 종주국이 맞고요. 그게 북한이 되든 저희가 되든 사실 전 세계에서 태권도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다만 저희와 함께 공동 등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종오 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로 최재춘 단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번 청장님께서 면담하셔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저는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안 그래도 국감 이후에 바로 만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 순서에 의해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청장님, 해인사 대장경이 만들어지기 한 200년 전에 우리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그게 팔공산 자락에 있는 부인사에 보관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재 지금 팔공산 자락에 있는 부인사가 기록에 나와 있는 부인사가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발견됐던 명문기와의 글자들을 보면 ‘부’ 자가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그러니까 대장경판 만들었다고 보고했던 그 군신기고문에 나와 있던 부 자하고 다른 부 자로 된 기와가 나왔어요. 이게 부호 부 자인데 명문기와의 부 자는 지아비 부 자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이 부인사가 그 부인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국가유적 지정을 했었는데 자료가 미흡하다고 부결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새로운 요사체를 발굴하다가 발견된 기와에서 그런, 군신기고문에 있던 부인사의 한자 부 자와 똑같은 글자가 적힌 기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공산 부인사가 당시 최초의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가 맞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속히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중요한 발굴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이 또 시급한 것이 옛날의 부인사 터하고 지금의 부인사 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터가 지금 상당 부분 사유지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여기서 발굴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여기서 석조로 된 수조와 수로까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가유적 지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빨리 지정이 돼야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보존·발굴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 중국의 우리 문화공정, 동북공정 차원에서 문화공정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화공정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여러 가지 물건들, 소품들이 보면 분명히 한국 드라마인데 한국 땅에서 진행된 그런 만찬 장소에 중국 피단이라든지 월병 이런 것들이 소품으로 활용됐다는 거지요. 이것도 은연중에 한국이 중국 땅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한복이 중국 복식으로 둔갑하

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문화공정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노골화되고 있고 또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10대들 40%가 지금 틱톡을 이용하고 있는데 틱톡에 한복을 치면 우리 한복과 아울러서 중국식의 한푸, 한복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청소년들 또 다른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복과 중국의 옛날 의상하고 혼동하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바이두 쪽에 검색을……

이 부분은 또 다른 틱톡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음식물, 우리 막걸리, 부대찌개까지 중국 음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중국 음식, 중국 이야기로 조선족이 한복까지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중국 음식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보면 중국의 옷을 입고 소림사 무술하면서 김치 담그는 그런 영상은 몇백만 조회를 기록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김치도 또 중국의 음식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또 중국 검색사이트인 바이두에 보면 우리 윤동주 시인이 중국의 조선족 애국시인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삼계탕이 중국의 광둥요리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중국 시청자들도 많은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대도둑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또 요즘 AI를 통해서, 챗GPT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한복 입은 여성을 그려 줘’ 이렇게 입력하니까 우리나라 한복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오히려 보면 중국풍의 의상 사진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AI를 통한 검색이 더 활성화, 활발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인터넷상에 떠돌면 결국은 그것들을 AI가 학습해서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가유산청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슨하고 속수무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상의 역사적인 오류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뭔가 체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니터링하고 또 시정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화공정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중국의 이러한 편파적인 게 너무 많고. 저희들이 민간 협력, 국가유산의 홍보대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온라인 홍보, 선제적 지정·등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한파라든가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전승 지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신규라도 종목을 더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매번 한번에 몇십 개씩 지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TF라든가 이걸 구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국가유산청만으로는 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방통위라든지 문체부 또 외교부 이런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필요하
고요. 또 여러 가지 역사 왜곡……

.....
또 우리 문화 왜곡에 대해서는 반크라는 민간단체도 수십 년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제가 종감 때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 뒀는데 이런 민간단체하고 공조도 아주 필요하
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감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부
처, 유관단체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검토해서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영상 먼저 띄우고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7월 2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20여 명을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갖습니다. 오른쪽의 세부계획안을 보시면 순서대로 소감 발표 및, 무형문화
보유자들의 소감 발표들을 하시고 축하공연까지 가졌습니다.

청장님, 이것 2019년에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때 했던 행사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것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아까 위원님들 설명드리면 되는데 왜 유산청에
서 해소를 제대로 못 하십니까, 저희 의혹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시다만 그 행사와 자꾸 비교를 하
는 것보다는 제가 현, 그것에 와서, 저희들은 간단한 격려행사였기 때문에 좀 쉽게……

○**배현진 위원** 저희가 영부인의 행사에 관해서 이룰테면 영부인이 대통령 대신에 대통
령 휘장을 달고 전용기를 혼자 타고 가서 문체부 예산, 청와대 부속실도 아니고 문체부
예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마포대교에 가서 우리 국가 고위 선출된, 임명된 공직자가 아닌
데 업무 지시를 하는 듯한 오해를 빚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
하시고 그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문화행사들, 국
악인들 모시고 하는 행사들은 영부인들께서 해서 칭찬받아 마땅한 행사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오해 없으시도록 유산청에서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명확하게 소명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평가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만 저는 식사 자리에서 가야금 연주하신다고 기생이라고 저희가 생각에, 그 사유가 연결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국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실 만한 표현이실 수 있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전승교육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악계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유산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2021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우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북공정의 뜻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것 띄워 주시겠어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중국 정부 프로젝트 동북지역의 3개 성과 연합하여 시작한 대규모 정치프로젝트, 학술연구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돌솥비빔밥, 한복,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서 제가 2021년부터 했던 것 보실까요.

아리랑을 버젓이 틀어 놓고 부채춤을 중국 열병식에서 선보인다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황희 장관이 한복을 입고 가셨는데 그 앞에서 버젓이 조선족, 자기 민족, 소수 민족이라고 저런 공연을 했는데 장관이 눈 뜨고 보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김치는 차이나이즈 캐비지라고 등록이 돼 있었고 한복 이런 것들, 우리 국가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중국이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탈해 가는 것을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장님,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드렸다시피 이게 외교부에서 얼마 전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유산청에서는 저희에게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중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에 이렇게 수동적, 방어적으로 하시지 말고 유산청이 새로이 개칭한 만큼 그 규모와 앞으로의 비전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오전에 신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중에, 대단히 재밌는데 유산청에 자료 제공을 하셨더니 그 등재된, 성급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북공정 사례가 81건에서 95건으로 업데이트됐다고 오전에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하자마자 업데이트하셨지요?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가유산청에서, 95건이 아니라 96건인데 의원실에 잘못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이것 유산청에서 81건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시길래 저희 직원들과 일일이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를 통해서 중국 전체 성에 있는 유산으로 등록된 목록들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96건이었어요. 조선족으로 검색한 것만 95건 그리고 한국식이라고 검색을 하면 1건이 더해져서 96건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 이틀에 걸쳐서만 찾아도 이렇게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진행 과정이 잘 확인이 됩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산청을 질타하려는…… 1분만 부탁드립니다.

유산청을 질타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관성적으로, 업데이트가 중국에서 2016년에……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겁니까? 2011년경에 마지막으로 바이두, 중국 포털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것을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이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2명이서 이틀 만에 찾아낸 업데이트 건들 이것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미리 좀 먼저 모니터하고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유산으로 등록해서 중국이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빌드업하는 과정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다만 모니터링을 좀 더 세밀히 그리고 더 자주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강화하겠고, 예비목록 제도를 도입해서 지정 대상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힘내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오?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오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경환 총장에게 질의 중에 학습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원들이 외부 강의, 겸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은 상당히 침해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강경환 총장은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저는 ‘있었습니다. 확인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우리 의원실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다 확인되었는데 총장님은 못 보셨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강경환 총장의 답변에는 ‘저도 감사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표현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위원장님에게도 제출을 한 상태인데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첫 번째로, 전임 교원 강의 책임시간 등 미준수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환 총장은 감사보고서를 다 봤다,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저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경환 총장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 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위원장 전재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님……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조금 전에 임오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지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지적사항 첫 번째, 전임 교원 강의 책임시간 등 미준수 돼 있거든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책임시간 미준수 사건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간에 2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감사기간 3년을 조사했는데 단 2건인데 그 2건도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냐 하면 학생들이……

○위원장 전재수 아니 총장님, 그러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1건이든 2건이든 100건이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있었긴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런데 아주 미미한 수준, 이것이 과연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원장 전재수 아니, 미미하다고 그래서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런데 3년에 단순히 2건이고 이 2건도 폐강이 되어서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자, 총장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지 이게……

○임오경 위원 주요 지적사항에 첫 번째로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위원장 전재수 총장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있었던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겁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아닙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학교 총장으로서의 입장은 이것이 과연, 다른 대학교의 그런 사례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전재수 총장님, 강의 책임시간 미준수라는 것은 학생들이 들어야 될 강의시간을 전임 교원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0년에 1건이든 100년에 1건이든 그것이 미미했던 있었던 것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미하다 그래서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건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임오경 위원께서 다시 말씀을 아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문석 위원 예,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정숙 여사의 행사는 여사 초청 공식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수 명이 모여서 공연 상납이 아니고요, 120명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오찬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재는 유산청이 초청해서 했던 정책 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 전수자, 이수자들을 폄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생 취급은 양문석이 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장과 영부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사유화했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누가 오는지, 어떤 자리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비밀리에 추진을 했고. 그분들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양문석이 한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생 취급하는 왕조시대의 판서냐라고 제가 질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위원장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의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혹여 양문석 위원님의 발언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속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청장님, 조직 기강이 상당히 잘못됐네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래서 감사……

○임오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린 겁니다. 답변에 있어서 허위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경환 총장 다시 한번 기회를, 고발 전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건데 이것 저는 청장님이 대신 저에게 고발을 당해야 될 것 같아요.

황권순 기획조정관님이 총괄해서 이것 자체 감사한 거지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주요 지적사항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은 위반된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황권순 기획조정관님, 총괄하신 총책임자로서 책임지십시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경복궁 근정전과 종묘 월대 등에 바닥재로 쓰였던 박석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설명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처럼 박석은 구하기도 힘들고 현재 채취가 되지 않아서 절대적 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유산청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박석 230점이 발굴되었고 이후 경복궁 협생문 복원 당시 출토되어서 경복궁관리소에서 치목장으로 이전 보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난 6월 궁능유적본부 자체 감사에서 박석의 존치 여부가 확인이 안 되어, 경복궁 내 다른 공사에서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이 안 되어서 계속 확인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유산청에서는 의원실에 과거 어떤 공사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 현재 박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장님,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 현황을 좀 늦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유산청은 처음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지금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제 의원실에서 조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2016년 201점을 화장실 정비에 사용했고 현재 56점이 경복궁 내에 보관되어 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어이가 없지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화장실 정비는 아니고요, 화장실 가는 길에……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다 말을 바꿉니다. 2016년에 201점을 화장실 정비에 사용했고 현재 56점이 경복궁 내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엉망으로 또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어도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왕이 다니기 위해 박석을 깔아 놓은 도로를 우리가 어도라고 말을 하는 거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유산청은 박석 발굴 후 자문 결과에 따라서 어도 복원 시 재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금 박석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어디에 사용됐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경복궁 내 가는 화장실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로 이용이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청장님 입으로는 답변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지금 이게 충격적이게도 향원정 옆 화장실 입구 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해 보니까 박석에 대해 공사를 시행할 당시 경복궁관리소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다. 이것 또한 불법 처리되었고요. 박석이 중요 문화유산임에도 국가유산청은 법률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시공한 것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 진입로 박석들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요.

그런데 청장님, 경복궁 내에 보관 중이라는 박석에 대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박석은 현재 건축폐기물 수준으로 부실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것은 원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박석을 의원실 조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찾아 내어 이쪽에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보관 중인 박석이 진짜가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현재 제 육안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지요. 육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협생문지에서 출토된 박석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시멘트 덩어리가 잔뜩 잔뜩 묻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마 붙이는 과정에서, 밑의 박석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시멘트를 붙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붙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다만.

○임오경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이것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이것 지금 시멘트 덩어리들이 잔뜩 붙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2008년 발굴된 박석은 실제로는 다 사라지고, 의원실 조사 전까지 존치 유무도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가짜를 가져다 쌓아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청장님, 2004년에 종묘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도중 크레인이 박석 위를 지나가면서 파괴한 사례가 있어 당시 유홍준 청장은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작년에 김해시에서는 구산동 지식묘 주변 박석을 무단으로 도려내 감독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석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돼야 될까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협생문지 출토 박석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아마 그 당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 문화유산으로 평가를 받지 않은 것도 저희의 불찰이 고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새롭게 찾아낸 것을 더 원형에 가깝게 복원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박석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거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징계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오전에 질문 잠깐 드렸던 것처럼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배석해 계신 분 중에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누가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 직무대리. 지금 담당 국장님 안 계시고?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예.

○**박정하 위원** 지금 천연기념물이 한 480건, 동물이 이 중에서 100건, 식물이 한 270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예.

○**박정하 위원** 수달은 82년 11월 달에 330호로 지정이 됐고,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문화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국장님이 계속…… 청장님이 이 세부적인 것까지 잘 모르실 테니까 국장님이 다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수달의 개체 수나 서식지 같은 대표적인 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정하 위원** 또 예산 부족?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서식지 관련 부분들은 지정이 되어 있고.

○**박정하 위원** 그러면 서식지는 전국에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확인 아직 안 되시고?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수달 자체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개체 수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개체 수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박정하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전국 동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박정하 위원 또 인력과 예산? 천연기념물인데?

아까 오전에 앞서 이기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산양이 막 저렇게 희생되는 것 보고도 그냥, 문화유산청으로 바뀌고 이것 잘 관리해 달라고 국회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몇 마리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서식지가 어디인지도 파악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씀인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수달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체 수 파악보다는, 최근에 와서 개체 수와 서식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박정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여쭙게요.

확산이 되고 있어, 그래서 개체 수도 확인이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수달이 양식장 와서 물고기 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뭐 해요? 문화유산청에서는 수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 놓고 어떤 일을 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 게 신고됐을 때 저희 청 직원과 관련 지자체가 나가서 수달을 안전한 구역이나 보호 그쪽으로 옮기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린이 대공원에도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수달을 거기다 방사시켰습니다. 보호·관리하는……

○박정하 위원 그냥 수달만 어떻게 유리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피해는 국민들이 모든 말든, 아니면 이게 얼마나 개체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도 관심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유산청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저기 일반 정부부처보다도 훨씬 더 갑 중 갑인 것 같아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옛날에 문제가 됐던 김포 장릉 왕릉류 아파트 기억 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공사 중간에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새로 그냥 입주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완공되고 들어갔습니다.

○박정하 위원 괜히 중간에 뭐 소송이나 생기고 막 그랬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지자체와 소통의 부재고 잘못된 문화재 보호법의 사례로 잘 남아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그때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도 문화재청, 당시 문화재청이 너무 과하게 해석했다 이런 얘기 했었지요.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환경 논란과 상관없이 그전에 보면 우리 천성산 도롱뇽 때문에 공사도 한 2년 정도 지연이 됐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막대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그런 것까지 보면 문화유산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조계원 위원님하고 이기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 대비팀, 아까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나 몰라라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면, 박수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협의를 한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 안 봐도 되는, 시간들 예산들 좀 더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라 저희 국회도 도와 드릴 테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한테 협의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공사가 되든 안 되든 입주민이 어떻게 공통받은 안 받은 나중에 준공심사 받을 때 우리가 심고해 봐서 문제가 되면 우리 마음대로 입주 안 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편안하게 갑행정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 하시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 와서 말씀 주시고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만만디로 행정하시지 말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바로 챙겨서 내년 국감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는 피감기관에 국립국어원도 있고 우리말을 존중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께서 기생 취급을 했다고 국악계를 폄하했다고 제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실 리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어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요새 특정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단어들 특별히 조심하고, 조막손, 귀머거리, 외눈박이 이런 말들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악인들께서…… 만약에 다른 악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연결되었을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릿집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 자체가 의도야 어찌 됐든 간에 국악인들을 상처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여러 언어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신체를 비하하거나 어떤 특정 집단을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각별히 조심하게끔 저희가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꼭……

○양문석 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만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애초에 전제를 민주주의 민주공화국과 왕조시대라는 역사적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하면서 유산청 청장의 행태가 왕조시대의 문화 행태에서 천민 노예 또는 아주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일반을 기생이라고 했었을 때 그런 취급을 했다. 돈도 안 주고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주하고 나서, 밥 먹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체의 영역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의 영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위원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오히려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취지는 위원님의 질의 자체, 그 질문의 뼈대를 지적하는 바가 아니라 저희가 쓰지 않아야 될 단어들을, 아까 질의 가운데 기생 취급했다라고, 청와대 여사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를 공격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셨던 국악인들께서 오히려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면 품격 있게 그 격에 맞게 대우해 달라고 다른 말씀으로 앞으로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하자, 오늘 기생 취급이라는 단어는 듣는 저도 상처였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양문석 위원 발언 중에 사실은 다른 단어도, 지난 유인촌 장관 청문회 때 민주당 모 위원께서 쓰셔 가지고 정회 소동까지 갔었고 그 해당 위원이 사과까지 하고 진행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드렸는데 좀 도에 지나친 비속어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또 혹여 양문석 위원님 발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발언 기회를 얻으셔 가지고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수긍하고 할 만한 일정한 해명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18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 국가유산청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직제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지금 현재 밀양에 분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밀양 분원은 사무관이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직제를 반영 안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무형유산원이 명실상부하게 발전하려면 저는 고품격 공연, 전시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형유산국이 만들어져서 정책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무형유산원, 무형유산국, 힘을 모아서 무형유산원 원장의 직제 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고위공무원단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40여 명이 되어 있는데 거의 반절로 축소된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요구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님, 그 무형유산국을 먼저 거기 배치한 이유도 힘을 좀 같이 발휘해서 직제까지 좀 더 상향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다시 한번 청장님은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에 장소 협조 요청을 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그런데 저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광화문 문루의 취타대 연주는 진입공간이 협소하고 목부재 파손 등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되어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사진 나오는데 저 노란 것 보이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취타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연주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올라만 가겠다고 해 가지고 구두 협의 요청을 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돼서 연주를 못 하게 했는데 연주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사람 병풍처럼 세워 놓겠다, 말이 돼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도열한 곳이 다행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마룻바닥이 아니고 강이라서 그게 아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청장님, 문루에 올라갈 때 안전요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문을 열어 주고, 당연히 거기 관리하는 요원은 같이 있었지요, 동참했지요.

○**김윤덕 위원** 뒤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있었는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직원들이 같이 있었다고……

○**김윤덕 위원** 경호처에 가로막혀서 못 갔다고 지금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이것 안 나오는데요, 시간 1분 더……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나와요?

경호처에서 막아서 못 들어갔다고 확인……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윤덕 위원** 저희 마무리 국감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가져온 규정이 뭐냐 하면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 국가원수 방문 등 이런 행사는 장소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했다고 해서 되어 있어요.

아니, 국가 대통령이 오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는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으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말씀드리자면 물론 경회루, 근정전이라든가 이러한 지정 사적, 보물의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은 불허합니다만 광화문 그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새롭게 복원된 건물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규정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대통령이 오는 행사는 허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대통령이 오는…… 대통령에 관한 행사는 훼손이 안 되고 일반 시민이 하는 행사는 훼손이 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용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물이라든가 사적 그게 규정이 있는데……

○**김윤덕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보물이든 사적이든 민간인과 대통령이 쓰는 건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훼손 우려는 똑같은 겁니다. 그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심사하는 기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답을 해야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장소 사용허가 예외에 따라 그것을 장소 사용허가로 본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그것 바뀔야 한다는 거예요. 청장이 주관하고 대통령의 행사이든, 하나님이 오는 행사여도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는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오는 행사, 청장이 하는 행사는 허가받은 것으로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청장이든 일반 시민이든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든 청장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문화유산, 국가유산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마무리 국감 때까지 이 규정이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그 수정은 저희가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회의도 하고 공능분과위원회에……

○**김윤덕 위원** 안을 잡아 오시라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 위원입니다. 접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 지금 안……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청장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국가유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건 중 1건만 복구비가 지원된다는 통계를 확인합니다. 2019년에서 24년 9월까지 국가유산 자연재해 피해 발생 건수가 606건인데 그중에 178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서 피해 건수 대비 29.4%만 지원된 것인데 이 정도면 국가유산청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 그중에 특히 목재 국가유산 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소방시설 구축사업 현황도 보면 사실 기대 이하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자체의 사업 신청이 568건인데 실제 반영은 354건, 62.3%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숫자가 높다 할지 모르지만 이 목재 국가유산에 대한 시급한 대비책을 생각할 때 이 역시 정말 기대 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예산을 보면 857억 원이 신청되고 300억 원으로 35.5%만 반영이 되었고 노후 전기시설 개선도 수요 대비해서 반영된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장께 당부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국가유산을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국회와 아주 절대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출된 우리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중에 세 점이 일본의 국보가 됐다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도다완, 연지사 종, 고려국 금자대장경 이런 것들이지요. 그중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 중 이것은 국유청에서 2013년부터 민간단체 협력해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12년째 환수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나머지 두 점은 반출 원인 자체가 지금 불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문화유산 환수 추진에 대한 계획을 보면 불법과 부당 반출이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지사 중, 12년 동안 노력한다고 하는데 연지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법 반출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막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다음에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좀 해 보세요. 그런 것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예산 확보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댐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청장께서 국가유산청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도 광산 등재 때도 보면 외교부라고 하는 큰 부처만 만나면 힘을 못 써요. 지금 환경부 만나면 힘쓸 수 있습니까?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라 하는 말씀드리고.

과거에도 보면 2010년에 제주 해군기지 만들 때 강정마을 앞에 천연기념물 있었는데도 동의를 했어요, 과거의 문화재청이. 그리고 2013년에 우리 문화의 상징인 경복궁 앞에 일본 대사관을 만든 문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하는데 문화재관리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때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잖아요.

문화재청 과거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번 기후위기 대응댐을 만드는 데 천연기념물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확인한 청양 지천댐에 대해서 정말 환경부에 다시 한번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 줄 것을 저는 요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명심해서 또 질타를 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큰 부처 만났다고 자꾸 쫓지 말고 우리 국가유산청으로서 고유의 자부심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에 대응을 하고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하고 이에 대한 청장의 마지막 답변을 확인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예산 지원이 늘 부족한 긴급보수비라든가 보수·정비 지원비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소규모의 증액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연지사 중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건너가 있는 수많은 우리 문화유산 중에 국보가 세 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일본의, 우리의 경우도 외국 문화유산이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등사 종은 중국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저희 국가유산으로 돼 있는 경우를 어떻게 반환하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연지사 중도 그러한 실정으로다가 담보 상태로 있었는데 아마 시민운동본부가 계속 지

속적으로, 반환보다는 거기서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 그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저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부의 문제와 저희하고의 이런 것이 접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장,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재원 위원 그래서 국보 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 태안사의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추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사진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신라 시대 승려인 적인선사 혜철의 사리를 봉안한 불탑인 적인선사탑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통일신라 불탑 가운데서는 기단에서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요소가 손상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로 국보 승격을 하자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보 지정심의까지는 이제, 최종심의까지 몇 단계밖에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보물로 지정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국보로 지정됨에 있어서 청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국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형유산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지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훼손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국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태안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6·25 때 썩 불타고 남아 있는 게 석조문화유산인데 그중에 적인선사탑은 당연히 국보로 승격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다만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서 시간을 좀 두고 했는데 이번에 마침 그것이 조사가 완료됐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무난히 내년 초쯤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승격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진흥원 최영창 원장님, 국가유산진흥원이 위탁·관리하는 곳 중에 한국의집 있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한국의집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한국의집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주로 우리 궁중음식과 궁중다과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2025년도에 이 한국의집이 정부 예산안에 리모델링 비용 6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하반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1981년 개관해서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충분히 할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에 인력 관리가 문제인데요.

PPT 한번 보시지요.

직원이 총 62명인데 모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이 중에 일반직 제외하면 조리직원 23명, 서비스직원 24명입니다. 경비·미화 8명 직원 등 총 55명이 조리, 서빙, 시설 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원입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 직원들 진흥원 내 타 부서에 활용 가능합니까?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타 부서 활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보 불가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김재원 위원** 6개월간 유휴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55명인데요. 인건비가 10억 원입니다. 이 동안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이런 것들이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으시다는 거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일단 조리직은 전통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올해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궁중음식에 특화된 전문가들이고, 조리장님뿐만이 아니라 서빙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통요리를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하실 정도로 다재다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애기 들어 보니까 돌잔치 지원사업 이런 걸 하실 예정인가 본데 그런 것보다는 전통음식 교육 이런 종류의, 직원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고품격 무형유산을 좀 알려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요리강좌가 있으면 가서 배울 것 같은데요. 청장님, 사업계획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제가 더 이상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요 시간을 조금만……

○**위원장 전재수** 예, 재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감안을 해서 질의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청장님, 정만조라고 아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정만조.

목포시사는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잘 모르겠는데요.

○양문석 위원 목포의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목포시사를 중건했던 정만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정만조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아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유학자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양문석 위원 유학자로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제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과 출신인데 정말 이런 사람을 유학자라고 하면 조선일보를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판단을 못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만조는 성균관이 일본의 교육말살 정책에 의해 경학원으로 격하되고 난 후 심산 김창숙 선생님과 매천 황현 선생님이 성균관에 발길을 끊은 이후에도 일제 식민지교육 정책에 협조하며 경학원 대제학, 요즘으로 치면 교수로 활동하고 국학아세, 친일 매국학과 뉴라이트 집단의 원조격인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과 고종실록 및 순종실록 편찬의 감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일제의 의도적인 조선사 왜곡에 참여한 사람, 유학자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친일 매국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국학아세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이 사람을 문화유산청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해 났냐면요 ‘정만조는 고종 2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두두두두두 그다음에 ‘이 당시 문학, 서예 등을 가르쳐 많은 인사를 배출하였고 목포시사를 세워 퇴폐한 학문의 기풍을 바로잡아 지방 문화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이게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이 타당하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있으면 시정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시정해야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기본적으로 국가문화유산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국가유산 관련 친일행위자의 친일 행적이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작성하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유산청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정만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법 위반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거기에 홍난파, 잘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홍난파는 반민특위에서 친일 행적자로 규정한 사람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홍난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게 안 뜨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홍난파에 대해서도 반민족 특별법에 따라 반민족행위보고서에 포함된 인물이다라는 딱 한 줄을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영문판에는 홍난파에 대해서 친일 행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지난해 32억 예산 받아 가지고 안내문 수정·교체 작업 진행 중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진행 중입니다.

○양문석 위원 홍난파 가옥뿐만 아니고 친일 인물 관련 등록유산 전반에 대해서 친일 행적 설명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다 고쳐야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명칭도 다 개선을 해야 되고요. 문화재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시 정정을 할 예정입니다.

○양문석 위원 만약에, 저는 지금 청장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당 부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항일독립운동 관련 부분에 있어서 조사 전혀 안 하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온 이후에 일절의 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역사문화유적 발굴을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유산청의 행태에 대해서 약간의 분노들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는데 공연 상납 이후 지금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유산청 청장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져 버렸어요. 최소한 국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뉴라이트, 즉 친일 매국학과라고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곡학아세의 전형적인 유산청장이라고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교체·수정하는 시기에 친일 행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줄 달랑 써서 생색만 내지 말고 그 사람의 공적이 있으면 공적대로, 그 사람의 과오가 있으면 과오대로 해야 앞서 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광장도 교육도 학습의 장도 되는 게 역사문화유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목포시사는 전라남도 기념물로 돼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거기까지 못 챙겨 본 불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양문석 위원 전라남도 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제가, 홍난파는 유산청 직속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매국노들, 친일파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작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과 과오에 대해서 양적으로 동등하게 1 대 1 비율로 안내판을 짜 주는 게 우리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유산청이 해야 되는 과

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만 새롭게 바꾸는 안내판들이 많습니다. 그때 맞춰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빠졌던 부분, 누락한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걸 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양문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재추가질의 안 쓸 테니까 조금만 배려 부탁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이 있는데 보유자가 0명인 종목이, 저희들이 명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보유자인데 6개나 됩니다. 보유자가 1명인, 그러니까 거의 이분이 사라지면 이제 전통문화가 계승이 쉽지 않은 종목이 개인종목 36개, 단체종목 27개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보유자의 경우에는 75세입니다. 이분들 밑에서 이분들의 교육을 받은 분들을 전승교육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64세입니다.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기서 보여지듯이 저희들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산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취약종목하고 국가 긴급보호문화유산 목록을 지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고령자 우선으로, 이분들이 전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종목을 갖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까지도 전승교육 권한을 가지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전승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건강수명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저희들이 명인이라고 하는 국가문화유산을 전수해 주셔야 될 분들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유산청의 각별한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PPT 띄워 보시지요.

동두천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단이 있었고 전쟁 이후에 미군이 장기간 주둔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다가 지금 평택에 모여 있지만. 그때 각 미군부대 주둔지 옆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춘이 합법화돼서 진행이 됐고 저렇게 성병관리소라고 해서 한국의 여성들이 성병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미군에 의해서 성병 감염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저 2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 방이 군 막사처럼 돼 있었고요. 밖에 철조망이 돼 있었습니다, 탈출을 못 하게.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 저기에 매달리는 한국 여성들을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 시설물이 동두천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헐렸고요. 그 이전에는 작게

있었습니다만 동두천에서 73년도에 재건축을 했던 게 저 건물이고 지금 동두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저곳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헐겠다라고 합니다.

지역주민들 중에는 찬반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국회 청원을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의 하나의 실태를 보여 주는 상징적 시설이기 때문에 비록 5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긴급하게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 임시 지정이라도 해서 철거를 일단 막아 놓고 그리고 임시 지정이 끝나고 나면 심사를 할 텐데 심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철거는 막아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떠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시민단체가 주장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임시 등록이라는 그 절차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시가 이것을 이미 다 매입을 하고 확대사업 발표하면서 등록에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등록을 하더라도, 임시 등록하고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안 하면 다시 또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그 의지가 없어서는 정말 어렵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반 나뉘져 있습니다. 지자체도 단독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병관리소들이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현대사에 있어서 저희의 아픈 역사이지만 문화재적 보호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긴급하게 지금 동두천시가 철거하려고 하는 걸 일단 막아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적 가치는 심사하신 뒤에,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유산청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동두천시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다음입니다. 환구단 문제인데요.

PPT 띄워 주시지요.

저희가 시청 앞에 보면 환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황궁우만 있고요. 환구단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취임했던 그런 역사적 장소입니다.

저 환구단 자리가 지금 뭘지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선호텔……

○이기현 위원 조선호텔입니다. 조선호텔이 조선철도호텔이라고 일제시대에 저 환구단이 헐리고 호텔이 지어졌고 황궁우만 남아 있지요. 시청 앞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호텔은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에 일제가 세운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을 유산청과 유산청 소관기관이 사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거기까지 세밀하게 판단을 못 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기현 위원 국가유산체제 전환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유산청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

외소재문화유산재단 김정희 이사장님께서도 여기에서 올 7월에 국외문화유산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변명하시는 것은 가격이 맞고 교통편의가 좋았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두 조직 다 부적절한 장소 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다음에는 좀 더 그 장소를 생각을 많이 해서,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맨 앞에, 경복궁 끝에 있는 박물관인데 고궁박물관 내의 수장고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수장고가 지하병커를 개조했기 때문에 그 위의 지상으로서는 1, 2층인가밖에 없고 지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소장품의 몇 %밖에 전시를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수장되어 있는데 이것의 수장고를 더 확대하고 문화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양시 인근에 수장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수장고 하나까 창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 고양관으로 바꿨습니다.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이기현 위원 명칭의 변경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현 위원 그분들은 그 땅에 관공서가 들어와야 한대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봐도 수장고가 요새는 개방형 수장고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지역발전에도 훨씬 더 창의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지역은 아니지만 이 수장고의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유산청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국가유산진흥원의 최영창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 아시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라의식이 24년도 3월에 처음 시행되었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행사 콘텐츠 개선을 위해서 7월경에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으셨을까요, 법률자문에서?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대중문화 활용에 관해서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요,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진종오 위원 잠시만요. 조금만 더 크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편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작곡가들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작곡가들하고 사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받았을 경우 저도 보니까 저작물 이용 시간이 전체 1시간 중에서 3분으로 매우 짧고 또 이 행사로 인해서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대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그에 불구하고 소속사라든지 그런 데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거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그것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

다.

○진종오 위원 어쨌거나 법률자문상으로 봤을 때는 공정한 이용인데, 진흥원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그 문제는 저희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궁궐 활용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버킹엄 궁전 근위병 교대식에서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 음악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블랙핑크의……

○진종오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케이팝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팝을 활용해서, K-컬처를 활용해서 수문장 순라의식에 좀 사업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틀어 드렸고요. 또 이런 수문장 순라의식을 결합해서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 배포하면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팬들이 원하는 게 의상, 굿즈, 액세서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유산진흥원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런 시도를 통하다 보면 K-컬처 홍보도 되고 각종 문화행사, 우리 국가에 있는 행사를 통해서 진흥원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알릴 수 있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원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플랜을 조금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력하겠다,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기보다도 플랜을 짜서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에서 검색해서 찾아본 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이 현재 기후변화 대응댐 후보지에서 존재하고 있는 걸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거거든요. 죽 보시면 다 있거든요.

아까 제가 고현천에 없다고 그랬는데 고현천이 아니고 용두천만 저희가 못 찾았고 나머지 전체 댐 건설 예정 지역에서 문화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가지고요 기후 대응댐 협의를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또 다른 PPT 부탁드립니다.

아까 황평우 소장 관련해서 팩트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국정원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의 블랙리스트에 황평우 소장이 명시가 돼 있고요.

다음 PPT요.

황평우 소장이, 그 밑에 보면 관리방안에 대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서울 소재 궁·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분을 유지해 왔던 모 땡땡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개인 비리 적출 노력' 했는데, 이 사찰 보고서가 여기서 작성이 됐다라는 거겠지요.

다음 PPT요.

그리고 이분이 A급으로 분류가 됐었지요. A급 사범으로 황평우 씨가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다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자기들이 요청해 가지고요. 팩트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양문석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병혁 그리고 장호근 독립운동 선열들의 생가가 허술하게 보존되고 있는 걸 봤는데요.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 967건 중에 항일독립운동 관련 등록문화유산은 123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12.7%에 해당하는데요.

유산청은 최근 3년 동안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약 3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항일독립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11.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급 사례도 1회 지원받은 경우는 27건, 2회는 3건, 나머지 3회 연속해서 지원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의 국고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한 경우가 96건, 78%에 달합니다. 이 문제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항일독립 사료를 포함한 근현대문화유산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힘듭니다. 그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근현대, 뭐 근대를 포함한 현대까지도, 저희가 50년 미만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일 관련 자료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이 수반돼야지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도 적극적으로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턱없이 가장 적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니 까 다른 문화유산과 형평성을 맞춰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청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좀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연주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 연주자 기숙회 이수자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수자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기숙회 이수자는 누구 제자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영희 보유자 제자……

○강유정 위원 아까 논란이 됐던 이영희 명인의 제자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 공연이 공연에 대한 대가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바로 개정되는 민원이 잘 해결됐다면,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 중에 청장님 ‘그 민원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민원을……

○강유정 위원 민원을 받았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속기록 보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글썄, 민원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죄송한데요. 늘 그쪽에서…… 다시 말해서 문화유산과 이런 것은 다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무형유산업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22년부터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22년부터 계속 요구를 저희가 했는데요.

○강유정 위원 요구를 했는데 요구에 대한 증거를 제가 못 찾았다니까요. 제가 보내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후까지 준다고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다시 정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정책 간담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책 간담회에 여사님이 왜 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그러한 이수자……

○강유정 위원 정책 간담회에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영부인이, 정책 간담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 왜 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참여해서……

○강유정 위원 그러면 제 남편이 저 대신 여기 정책 간담회하는 데 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까 오찬이 아니라 정책 간담회라는 표현을 청장께서 쓰셨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여러 가지 예능 보유자들의 상황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저희 그때……

○강유정 위원 아니나 다를까 주요 발언 내용을 봤더니 ‘박근혜정부 때 사라진 의료보험과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보유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길’…… 영부인이 오찬을 하면서 담화를 나누고 이게 아니라 정책을 진짜 서로 얘기를 나눴네요.

그리고 기숙희 씨는 이수자들의 전통공연에 대한 기획 및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왜 여사님한테 전달하냐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저도 옆에서 동참을 한 거지요.

○강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왜 여사님이 정책 간담회에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참여를 하셨으니까 같이 있으시지요.

○강유정 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오전 질의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 시행령 개정 청탁을, 청탁을 청장이 받았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 청탁이란 표현을 아까 ‘제가 받았어요’라고 했고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저희는 재능기부로 봤습니다.

○강유정 위원 재능기부라니요. 제가 청탁금지법을 찾아봤더니 공연·스포츠·문화 관람권도 선물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모신 분 나왔잖아요. 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국회에 와서 호소할 정도인데 이분 이수자세요. 그분의 공연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고요. 일종의 향응 제공으로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심지어 기본계획 용역업체는 국토부장관이었던 제주도, 제주도는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과 매우 연관이 있는데 제주도 소재의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수주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게 의혹의 연속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민간인이, 김건희 씨가, 김건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만약에 국토부를 움직였다면 국정개입이고 대통령 권한에 기대어 이 청탁을 들어줘서 국토부에 시행령을 바꿀 것을 요구해서 일사천리로 바꿨다면 이건 국정개입입니다. 둘 다 걸립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다 청장님이 대답하던 와중에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답들에서 나온 얘기를

입니다. 또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지금 두 개가 걸린다니까요. 민간인이 국토부를 움직였다면 국정개입이고 대통령 권한에 기대서 청탁을 들어줬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민간인…… 그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늘 저희들이 보내고 협의했던 내용 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그게 허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못 찾았다니까요. 못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오후까지 보내 준다고 확신하시더니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까지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혹이 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청장님,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정기조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에도 제가 국감 때도 정기조사 결과 보면 굉장히 등급이 하향 그정도 아주 A등급에서 여러 단계 하향한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정기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보면 판정 등급이 떨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보, 보물만 하더라도 단계 하락한 것이 167건이나 되고 그중에 보면 4단계 하락한 것이 22건, 2단계 이상 하락한 것도 보편한 135건쯤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의 실례를 보더라도 저기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 원종대사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번 정기조사 때는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던 것이 갑자기 이번에 조사 때 보면 시커멓게 돼 있고 이끼까지 끼고, 이렇게 A등급이 E등급까지 이렇게 막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교태전 뒤에 보면 아미산 굴뚝, 이건 굉장히 예쁜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담장 구조물인데 이게 경복궁에 있는 것들도 보면 장식의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게 낙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보면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있습니다, 운제. 이것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유물조차도 보면 등급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국가유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등급 하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B등급은 사실은 경미한 보수만 필요한 부분이고요 C등급은 경미 보수보다 빨리 처리를 위해서, A등급에서 바로 C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등급 하락한 것이 자연재해, 불가피한 그런 이유에 의한 것도 있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정기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발견을 못 하고 있다가 굉장히 조그마한 자연재해나 충격에도 크게 훼손된다거나.

또 이렇게 보면 조사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보면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적기에 대처를 못 한다는 것 또 문제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적기에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더 훼손이 심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또 자연재해 같은 인위 훼손뿐만 아니고 작년 말에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되면서 크게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또 그것 말고 세계문화유산인 선릉 같은 경우에도 봉분이 훼손되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국가유산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요즘에 나오고. 그래서 지금 낙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낙서 테러 이후에 CCTV 확대 설치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과연 이런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숭례문도 화재 이후에 복구하는 데만 한 250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인력들이 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면 청원경찰이라든지 직영소방원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목조 문화재들인데 저도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몇 군데 가 보면, 봉정사 극락전 이런 데 가 보면 특히 이게 산간오지에 있는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목조건물 화재가 났을 경우에 골든타임이 얼마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골든타임이 아니라 빨리 소방청과 긴급하게 해서 일단 초동진화는 사찰 내에서 하고 있고요. 주변의 돌봄인력과 소방청이 바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특히 자연재해 산불 같은 그런 화재 위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 가지고 방호를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서와 같은 것 이런 것들, 추가적인 CCTV 설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고 상당히 취약한 지역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현재 지금 국가유산청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CCTV가 8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관리인력이 몇 명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인력으로 하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8000개가 넘는 CCTV 관리하면서 딱 3명이 관리한다고 그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교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지역별로도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황실 같은 경우 인력도 보면 3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면 이 8000개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청에서 관리하는 인원 말고 각 지역별로는 또 다시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후약방문으로 다 훼손되고 난 뒤에 복구가 아예 불가능할 부분도 있고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비용이 더라도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관리인력도 전문인력들 배치해 가지고 이런 문제,

또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낙서와 같은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낙서와 같은 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데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 강구해서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경북궁 담장 낙서 사건은 하나의 새로운, 저희 문화유산 훼손의 새로운 계기가 돼서 CCTV를 더 보강하면서, 물론 CCTV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다 없애고자 했고요.

또 하나 요새 이제 추가적으로 왕릉이라든가 이런 데도 불법적인 침입을 통해서 그런 훼손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물인식시스템을 통해서 경고음과,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주변 지역에 소음을 유발해서 많은 항의가 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문화유산이 우선 훼손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특히 경북궁 낙서 같은 경우에 교사범은 30대지만 실제 행위를 한 사람들은 10대들 아닙니까? 촉법소년들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것 또 실질적으로도 민사상으로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이게 벌칙, 페널티로 내야 된다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라 그럴까요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경북궁 담장 낙서 계기로 많은 홍보영상과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계도하고 또 모든 궁궐 입구예다가 낙서에 대한 조항과 금지, 벌칙 이런 것을 다 넣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청소년에 대한 계도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4일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 오찬 간담회요, 문화재청이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그러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문화재청 행사를 상춘재에서 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그때 상춘재 관리를 하는 총괄기관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상춘재 장소 사용 신청은 누가 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또 거짓말하시네.

이날 진행은 누가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진행은……

○민형배 위원 대통령실에서 냈잖아요, 상춘재 사용허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허가는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민형배 위원 무슨 문화재청 행사를 용산에서 장소 신청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시네.

이날 진행 누가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이날 행사 진행 누가 했어요? 문화재청 직원이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직원들은 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민형배 위원 진행 누가 했냐고요, 진행?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비서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문화재청 행사 진행을 비서관이 하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회 본 것만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회를 본 것은 분명합니다.

○민형배 위원 사회를 왜 그리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하냐고요, 문화재청 행사를. 앞뒤 안 맞는 얘기 계속하셨어요, 오늘.

그다음에 그날 문화재 예능 전승자들이 들어올 때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서울역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알려 드린 것 맞지요? 그날 당일 날,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거기 참석했던 기숙회 전승자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공연했던.

○민형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하셨던.

이분이 그날 이후로 우수이수자가 됐대요?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민형배 위원 지금 청장님은 오늘 이 모든 그 행사에 관해서 콘셉트부터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진행자가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말이에요. KTV 그 당사자예요, 그 말썽의 당사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KTV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대통령실 행사였다니깐요, 결국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낱알이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스턴 미술관 2월 2일에 가셨을 때 사리 확인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확인 못 하셨지요? 그 뒤로 누가 확인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종단에서 가서 확인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이 왜 거기 나서서 그렇게 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 반환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민형배 위원 종단에서 하면 되는데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보스턴 미술관은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종단하고는 직접 할 수가 없다고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사리도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보스턴 미술관 사리 반환 과정에 대해서도 전 과정을 조금 전의 그 행사처럼 다 좀 챙겨서 주세요.

저는 지금 거기에 앉아서 피감기관장으로서, 제가 국정감사 몇 번 해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피감기관장 중에 최악이에요. 거짓말하시지요, 공적 마인드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지요, 게다가 국가유산청장으로서 반문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계속 보이고 계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이 보고서를 제대로 안 주시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저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좀……

청장님, 경복궁 낙서 사건 기억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비용 많이 들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봐 보세요, 다음번.

봉림사 아미타여래좌상 저것 보물인데 저것도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저것도 봐 보세요. 이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되겠잖아요. 이게 벌써 신고가 한 40~50건 있었다는데 대책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등산 증심사 화재 보고받으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받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한 4억 2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이것 목조건물이에요. 13일에는 인천 능인사 화재 났지요. 8월에는 장흥군 미륵사에서 또 불났지요.

그런데 재난 방지사설이 형편없어요. 저 표 좀 봐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 해 났는데, 너무 없어요. 특히 정말 중요한 것,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안 되어 있지요? 거의 안 되어 있지요? 가입률이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특히 사찰 측에서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여기도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장경판전은 거기에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지하는 시설.

○민형배 위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화재보험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게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장경판전을 보험가액을 얼마를 매겨야 되는지 그 사람들도 사실은 보험 자체를……

○민형배 위원 아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특히……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는데요,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불나면 어찌려고 그러세요라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은 불 나기 전에 미연에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화재보험은 가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시켜 주고 있고.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불 안 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불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불 안 나게 하려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가입을 하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더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아마 가격하고 보험 자체가……

○민형배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 그다음에 이 화재 대책 이런 것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가 국감 하면서 처음 접하는 기관장이세요. 안 맞아요, 지금 거기 계시는 게.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늘 오셔서 지금 한 말씀도 못 하고 계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님, 김성배 소장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입니다.

○배현진 위원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만 서 계시고.

청장님, 제가 올여름에 별 기대 없이 갔다가 굉장히 감동받은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점은 국가유산청의 공로에 제가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하셨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배 소장님, 올해 8월에 시모노세키에서 어떤 행사 하셨지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예.

○배현진 위원 어떤 행사였습니까?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조선통신사선을 저희가 재현을 했는데요, 그 배를 가지고 260년 만에 일본 본토 항해를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조선통신사가 뭐지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왕래했는데요. 그중에서 조선 후기에 갔던 걸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을 열두 차례 왕래했던 저희 통신사선이 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조선 영조 때부터 있었던 외교사절단이지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예.

○배현진 위원 시모노세키에서 올해 8월에 이 행사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과 우리 외교통일위원장님 비롯해서 민주당의 위성락 의원님 등 몇 분의 의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모노세키라는 도시 자체가 엄청 작아요. 일본의 작은 어촌마을인데 무슨 행사가 거창하겠느냐 하고 갔다가 사실은 제가 그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통신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저렇게 보여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감이 좀 안 오실 텐데요.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크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크기가 길이가 3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0m 정도 됩니다.

○배현진 위원 아파트 한 11층 높이만큼 높이가 되지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예, 길이가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것 복원하시는 데 쉽지 않았지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소요가 됐습니다.

○배현진 위원 4년 정도 되셨습니까?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연구하는 데 2년 걸리고 그리고 설계하고 만드는 데 2년 걸렸습니다.

○배현진 위원 고서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예, 당시에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나무를 구하는 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가서…… 청장님, 이때 행렬이 가 보니까 시모노세키 도시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마치 우리 조선통신사 행사가 아니라 일본의 한 마을, 시모노세키 마츠리 행사처럼 그 도시 자체가 들썩들썩하더라고요.

실제 조선시대에는 조선통신사 몇 명이나 파견됐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정확한 그 기록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셨고, 아까 위원님 보신 대로 그 당시에는 에도 막부에서 그걸 하나의 축제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도쿄까지 가는 행렬을 죽 이어간 겁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K-콘텐츠, BTS, 블랙핑크 등 많은 예술인들이 나가서 활약하고 있지만 조선통신사 행렬에 갔던 무희들 그리고 악기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악단들 그다음에 도예가들 그다음에 한학자들, 유학자들 이 많은 분들이 등장하셨을 때 일본에 살던 일본 민중들이 굉장히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했더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이 우리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기념 해서 아마 이것을 정부의 뒷받침없이 우리 민간단체에서 계속 일본 당국과 해 온 것 같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내년에는 좀 뭔가 특별하게 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민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 K-콘텐츠의 어떤 뿌리가 된 조선통신사 이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조선통신선이 가는 것이 한계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소위 얘기하는 K-컬처와 여러 가지 케이팝, K-문화가 여기서 일본에 아주 한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시모노세키로 갔습니다만 원래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건 오사카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오사카 엑스포가 있으니 거기까지 조선통신사선을 갖고 들어가는 것을 아마 내년의 목표로 정해야 되는데 일단 국회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내년엔 조선통신사선 행사가 국가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진 위원 고증하느라고 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신동욱 위원 오늘 민주당 쪽에서 국악공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충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 가운데 저희가 놓친 것이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김 여사 간담회 가야금 공연에 야, 기생 상납’ 이런 표현을 언론이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공연에 국악인들이 오시지 않고 대중가요 가수가 왔든지 아이돌 스타가 왔으면, 우리 마음속의 저변에 국악인을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중가요 가수가 왔으면 그냥 저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왔나, 돈은 얼마나 줬나 이런 걸 질문했을 텐데 기생 상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는 자리라고는 합니다만 한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습시다만 저희가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어떤 유감의 발언이라도 위원장님이 권고를 하시고.

우리 전통문화 하시는 분들이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기생 상납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장님이 한번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그렇지 않아도 아까 배현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신동욱 위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위원님께서 하여, 신동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뜻으로 들릴 것 같아서 오후 회의가 속개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얻어서 그 부분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속기록에 확실히 남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위원장인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양문석……

○위원장 전재수 제, 위원장의 발언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충분히 그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한마디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혹시 들으셨어요?

○신동욱 위원 예, 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기생 상납이라는 표현 쓴 적 없어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것. 저희 둘이 지금 논쟁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기생……

○신동욱 위원 그런데 다 받아들이는, 언론이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기생 상납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 상납이라니요. 공연 상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저런 식으로 왜곡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왜 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했다고, 기생 상납이라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갖다가 여기에 써 가지고 상대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왜곡을 시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속기록에 남긴다는 차원에서 양문석 위원님께서 그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또 김승수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생 상납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니깐요.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신동욱 위원이 기생 상납이라고 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전재수 그것은 연합뉴스에,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났다라고 인용을 한 겁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를 이야기한 거니까, 연합뉴스에서도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지 않을까……

확실한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속기록에 분명하게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그 정확한 속기록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연합뉴스에서 조치를 취할 걸로 봅니다.

제가 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문화재청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꼭 대형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외 교사절이 오셨을 때라든지 이럴 때 와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합니다.

○신동욱 위원 요청을 하기도 하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신동욱 위원 그런 공연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걸 배려를 미리, 어느 정도 시간과 이런 걸 양해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먼저 이렇게 이런 공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신동욱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장소에 대통령 부인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를테면 우리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런 하우스 콘서트 같은 형식의 모임에 절대로 노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인지 문화재청의 해석이 좀 궁금해서 그냥 말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의, 아까 강유정 위원님께서 정책 간담회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간담회라는 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다시 말해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청취하고,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해 보고자 하고.

그런데 저희가 늘 그런 자리를 자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을 다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상춘재라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잘, 그런 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기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은 이런 것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계셔 봤던 분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왼쪽 사진에 김 여사가, 같은 겁니다. 같은 장소, 정책 간담회는 아니고요 청와대 초청 오찬행사의 2019년 행사입니다. 저분들 작품 가지고 오면 돈 드립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저분들 저것 차에 실어 가지고 오는, 그러면 저것 상납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신동욱 위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사진에 섞여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장시간 저희 국정감사에서 공격 당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조금 착잡합니다.

○신동욱 위원 2021년 김정숙 여사……

1분 더 주세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방문했을 때 BTS 같이 갔었지요? 저때 BTS 얼마 컸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모르겠지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부인이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날 김정숙 여사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청와대 초청했을 때도 두 분이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돈 받고 공연하신 것 아니지요? 밥 먹는 자리에서 공연하는 건 괜찮고 정책 간담회에서 공연하면 안 됩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가서 노래를 했느냐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노래한 것은 더 나쁜 것이지요. 식사 자리에서 쇼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청도 앞뒤 분명한 자료도 남겨 두시고 또 기획 단계에서 어떤 의도로 기획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문제 제기는 분명히 귀담아들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어떤 행사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는 행사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들이 출연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의도로 자꾸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청장님 말씀을 좀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양문석 위원 신동욱 위원님이 연합뉴스 보라고 해서 연합뉴스 봤어요. 기생 상납이라는 단어 없어요.

왜 여기에서 대놓고 거짓말, 가짜뉴스를 살포하시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대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기생 상납이라는 표현 없어요. 연합뉴스 기사 보세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진짜 없냐고요.

○양문석 위원 없어요.

○신동욱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건 뭡니까?

○조계원 위원 기사에는 없고 네이버가 붙인 제목에 있어요.

○양문석 위원 그리고 분명히, 최소한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면 제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나…… 좀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합뉴스가 쓰면 그게 사실이에요? 조선일보가 쓰면 사실이나고요.

저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사과하지 않으면……

○배현진 위원 기생 앤드 상납이 아니라 기생 취급, 공연 상납 이 말씀은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한 분 한 분씩……

○양문석 위원 보세요, 제가 그 말을 안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생 취급했잖아요! 내가 한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배현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모욕적인 발언하신 거니까 조용히,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십니까! 잘하셨어요?

○신동욱 위원 그게 뭐가 달라요! 기생 취급이나 기생 상납이 뭐가 달라요, 그게! 말 이해 못 해요?

○임오경 위원 아, 어는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 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전재수 자,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기생 취급하고 기생 상납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표현을…… 같은 말이에요?

○배현진 위원 양문석 위원님, 잘하셨어요, 지금? 잘하셨냐고요!

○신동욱 위원 국악인들한테 사과하세요!

○배현진 위원 적당히 저희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데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위원장 전재수 자, 양문석 위원님……

○신동욱 위원 사과하시라고요, 국악인들한테!

○양문석 위원 보세요. 기생 취급을 한 사람이 양문석이 아니라 청장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에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배현진 위원 기생 취급, 상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하셨잖아요.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위원장 전재수 자, 배현진 위원님……

○신동욱 위원 기생 취급이 뭐가 달라요, 그게!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자, 의사진행발언……

○배현진 위원 아까 좋게 넘어가자고 했으면 넘어가시면 되지 왜 말씀을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세요, 안 하신 말씀도 아니고!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배현진 위원님, 잠시만요.

○양문석 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기생 상납이라는 말을 언제 했다고 우기는 거야, 지금!

○배현진 위원 목소리 높이면 다 정답이에요?

○위원장 전재수 자, 정리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야, 초선이!

○위원장 전재수 자, 잠시만요.

○임오경 위원 배현진 위원, 그런 말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버릇없다니요!

○배현진 위원 사죄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막말했다고 해서 같이 막말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뭘 잘했다고!

○양문석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 전재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오늘 여과 없이 드러난 날입니다. 낚시 제목으로 정치를 갈라치고, 그리고 언론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보도에 대해서 왜곡하는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고요.

다시 한번 기생 관련 발언 이야기합니다.

창장이 ‘간담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의견이 나와’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국가 무형문화재 불려서 출연료도 안 주고 공짜 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짜 공연을 시킨 유산청장과 그리고 그 공짜공연을 즐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분명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왕조시대입니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사극에서 보이는 조선시대의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논 것 아니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돈 안 주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들 부르자 하는 이 따위의 행태에 대해서 기생 취급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보할 수 없는 건 기생 상납과 기생 취급이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 국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언론의 못된 작태를 그대로 믿고 그게 양문석이 한 말인 것처럼 비판하고 맥락과 이탈했던, ‘국악인이 기생이라고 생각하냐. 국악인에게 상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생 상납이라는 단어로 상대 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논의 과정에서 저의 고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정하게 논쟁 과정에서 나왔던 저의 불필요한 언어 등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직종이 됐든 그 특정 직종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언론 탓을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언론이 그런 제목을, 워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제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저도 목소리 높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사과 백번을 못 합니까, 천 번을 못 합니까? 왜 본질을 피하고 비겁하게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을 사과를 요구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문석 위원 국악인들한테 미움 받지 않으라고 적어도 그 부분은 바로잡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지만 오늘 많은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고 잘못도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뭐라고요? ‘그 지랄들이야’라고 또 표현하셨잖아요. 그거 잘하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위원님 다시 한번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과정에서 제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중하게 이 장면을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의무가 위원장인 제게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고요,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경위를 좀 파악해 보니까 기사 내용을 쪽 썼는데 데스크에서 아마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사 제목을 그렇게 하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아, 이것 제목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데스크에 수정 요청을 했는데 그 수정되기 전에 기생 상납이라는 게 이미 떠 버려 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저희 상임위가 파행이 되는 와중에 제목이 수정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님께서서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될 때 그 발언이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고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제목만 보고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 사이에 기사 제목이 다시 수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이것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는 설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신동욱 위원 아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청장님, 지금 이렇게 정회를 해야 될 정도로 여야 위원님들의 논쟁이 난사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작년이면 문화재청장님이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작년,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제의 발단 문화재청에서 만들어 놓고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란, 논쟁이 있어야 됩니까? 언성이 높아져야 되냐고요. 오늘 또한 청장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오락가락 계속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앉아서 듣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인 제공을 하신, 정확하게는 원인 제공은 김건희 여사가 했지요. 작년도 제가 청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조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밖을 자꾸 나와서 기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절차 무시하고 하는지. 제가 청장님에게 몇 차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참 일하시기 힘들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용산 김건희 여사 원인 제공도 있지만 저는 오늘 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도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든가 이것도 제 기억으로만 이렇게 한 게 마치 잘 모르면서 위증한 것처럼 됐는데 정말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청와대 관리하는 여러 와중에서 굉장히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안 하겠으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나요?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서 줄속 이전으로, 제가 가장 힘들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크게 외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줄속 이전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지금도 새어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청와대 영빈관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기들 사용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절차 무시하고 서류제출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하는 절차에 있어서 진짜 너무나 큰 유감을 표하고요.

정책 간담회라고 해 놓고 청와대 상춘재에서 했다는 이 건에 있어서도 도저히 저 또한, 제가 질의를 준비한 위원이 아닌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것을 준비한 위원님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 진짜 답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제가 박석 관련해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201개 사용하고 56점 남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원실로 추가적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유산청이 민원인에게 답변한 것은, 감사 청구 답변에서는 70점이 있다고 정현철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이렇게 70점인지 56점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오락가락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임오경 위원 모든 책임은 청장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연유산국 일부 업무 영역이 환경부와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유산청 스스로도 업무 중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국가유산청 조직개편안에서는 자연유산국 편제와 관련해서 업무 영역에서 업무 중복 또 이중 규제, 환경부하고 기능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는데 청장님, 환경부와 이 부분은 조정·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중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앞으로 그럴 예정이고 환경부하고 저희가 이번에 자연유산국을 하면서…… 이미 자연유산기본법 만들 때부터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또 오전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산양 관련 질의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은 산양 먹이 주기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지요? 그랬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밥도 중복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 산양 먹이 주기는 이미 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 나오고 있지요. 아니, 밥도 우리가 중복으로 줘야 되나요? 대체 산양은 하루에 몇 끼씩을 먹어야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임오경 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청을 환경부에서도 좀 받아 봤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예산도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환경부에서 14조 3493억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 13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1300억 원이 다 야생동물 습지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복원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이요?

○임오경 위원 예.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는 뭐 적습니다.

○임오경 위원 적어요. 그런데 왜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이냐고요.

제가 다른 동물들도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천연기념물 두루미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동물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두루미는 야생생물법상 CITES 보호종인데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루미는 자연유산법상 천연기념물인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두 군데서? 모르겠지요?

제가 청장님한테 알려 주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두루미가 아프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한창인데 천연기념물들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 아니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때그때 저희가 발견하는 상태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오전에 언급된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CITES 보호종인데 최근 경남에서는 수달이 양식장을 습격해 환경부가 수달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천연기념물 수달이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냥이 이루어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또한 환경부에서는 야생생물법에 의거해서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만약에 국가부처에도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피해 보상해 줘야 됩니까? 요청을 한다면 국가유산청에서도 해 줘야 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때 저희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는 야생생물법에 의거해서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민들이 또 국가유산청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중복, 이중잣대니까요. 그렇지요?

천연기념물 중에 증식·복원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존원에서 반달곰을 복원시키는 동안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복원을 위해 무엇을 했어요? 이것도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마지막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체제도 다른 만큼 규제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두루미처럼 CITES 보호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일 경우 국가유산청 자연유산법에 의거한 규제도 받아야 하고 환경부 야생생물법의 규제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복 실시도 우려되고 있어요.

지금 국가유산청에서도 연구용역 실시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이것도 이중으로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지 말고 자연유산국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중복되는 업무를 서로 조정을 해서 잘 협업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저희는 국립자연유산원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는 주 연구목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

습니다.

○임오경 위원 업무 중복이라는 건 나눌 수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국민의 혈세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 예산은 환경부의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예산이고요.

○임오경 위원 적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데로 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냥 이관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는 조언을 해 드립니다,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원장 전재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깐,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에 2024년도 노벨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났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에 이어서 한국 작가 최초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박수)

앞으로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에 이어서 과학기술계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연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문체위원님들과 함께 더 정진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양문석 위원 노벨문학상 축하에 즈음해서 신동욱 위원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인 제가 듣기에는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정말 기쁜 소식 국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같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문체위원들 먼저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 우리 같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앞서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해서 광화문 문루에 올라간 것 일부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전 답변에 보면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라는 취지의 답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답변하시는 게, 오늘 국감장에서 답변하시는 게 본 사실 내지는 사실과는 달리 청장님이 혹여 너무 빨리 급하게 답변을 하시다가 우리 위원님들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감사가 더 남아 있으니까 매번 위원님들 질문에 좀 신중하게 답변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이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날 당시 광화문 문루에 오른 것에 대해서 유산청이 따로 별도로 승인해 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 때문에 장소 사용을 허가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어서 했던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정하 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취타대가 올라간 그 바닥이 훼손 우려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위원님 네 분이 계시거든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민형배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저 사진 보면 왼쪽이요, 청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김건희 여사하고 나누시는데 저 행사는 대통령실 행사가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주관 행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그것을 총괄해서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됐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문화재청 행사라고 그렇게 하고는, 대통령실 행사를 문화재청 행사라고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연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금 보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재 보존 원칙은 원형이 아니라 원상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상 유지를 하려면 형태나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기법, 기술 이런 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저 사진 한번 봐 보시지요. 그때는 저렇게, 저게 프랑스 노트르담성당 복원공사 중에 하는 목공작업 사진인데 왼쪽 게 중세 그림이에요. 오른쪽 게 지금 사진이고요. 저렇게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저게 국가문화유산을 원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의 대원칙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 다음 보시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목공사의 연장들을 나열해 봤어요. 그런데 저 연장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많은 부분이……

(연장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외국산이에요, 이것까지 다. 말이 좀 안 되지요. 원상이 유지될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아예 현장에서 이런 연장이 사라지기까지 했어요. 이것 실태조사 좀 하시고. 저렇게 해서는 원상유지 안 되거든요, 원상회복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좀 실태조사를 하시고 대안을 장만하셔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주문했습니다,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뭘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저 왼쪽 능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고려왕릉입니다.

○**민형배 위원** 고려왕릉이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저 왼쪽은 조선왕릉이고 오른쪽은 고려왕릉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고려왕릉을 저렇게 관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민형배 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저 대책도 꼭 종감 전까지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짤막짤막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육의전 지하에 개발해 놓은 거기를 가서 정말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은 문화재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냥 덮어버린다는 얘기가 옛날에 유행처럼 있었는데 우리 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도시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계천 종묘 부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100m로 하는 이유가 그동안 많은 개발과 이런 게 이루어져서 그걸 넓게 범위를 확장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운상가나 종묘는 세계유산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높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 5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300m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거리, 소위 이제 말하자면 높이 규제 문제도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 뭘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너무 건설업자들이 고민하지 않게 공공기여 같은 것을 받아서 아파트 내부에 주민들과 그 역사유적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 같은 것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데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유적 파손이 많았던, 지역 개발 때문에 많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건설이 너무 난립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조금 더 완화하고 국민들의 편의에 맞도록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아이디어를 좀 내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문화라는 게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되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장인들 공예품 사들여서 대여해 주는 은행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매년 돈을 얼마나 쓰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지금 전체 작품 수가, 한 10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신동욱 위원** 매년 10억 정도 예산으로 계속 사들이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60% 정도는 대여가 되지 않고 있고. 저도 이번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매년 10억씩 들여서 사들이면 그게 상당한 양일 텐데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저기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개 대여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신동욱 위원** 수장고에 있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큰 북이라든가 불교 미술품이라든가 좀 활용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창고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소반, 사방탁자, 여러 가지 도자기는 굉장히 대여가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 대사관, 관저 그리고 한 국문화원, 여러 곳에다 대여를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공문도 보내고 각 부처에서 많은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물론 크기도 하지만 소유작품이 3805점인데 대여하고 있는 것은 1497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0점 이상은 그냥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뜻이어서 이런 것

이야말로 조금 홍보만 잘하면 굉장히 많이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잘 보급되면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고 문화재 만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근대화산업유산군으로 66개를 조사·발표합니다. 이것들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도하려고 피하면서 발표한 건데 그중에 30여 곳이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계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등록하려고 하는 잠정목록이 4개가 올라가 있지요. 히라이즈미, 이견 불교의 정토를 대표하는 사원. 아스카·후지와라, 일본 고대수도 고고학적 유적지. 고대 가마쿠라의 사원, 신사 및 기타 구조물. 그리고 히코네조. 여기에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안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강제동원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적지들이.

○조계원 위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에 현재 27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아시오 광산하고 다테야마·구로베 댐 얘기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사도 광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조계원 위원 151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오 광산에는 혹시 얼마가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한 200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조선인 노동자 2416명이 강제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구로베 댐에는 얼마가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약 1000여 명으로……

○조계원 위원 1000여 명이 강제노역을 당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다시 제2, 제3의 사도 광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잠정목록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디플로매트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에서 일본의 사도섬 금광 한국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는 보도 혹시, 8월 7일 자 기사인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걸 요약해 보면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를 세탁하는 완벽한 공범으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냈다. 윤 정권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현대성과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시대의 잔혹 행위와 엘리트의 협력을 얼버무리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유네스코의 정신과 세계유산협약의 목표인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이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유네스코와 다른 국가들은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는 외교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키우는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도섬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일본은 기뻐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분열되고 상처받고 있다. 마지막 교훈은 사도의 금은 순수했을지 몰라도 그 역사에는 불순물이 존재한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려면 나쁜 기억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역사적 기념물에서 망각과 부정은 자리할 수 없다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얼마나 큰 우리 국민적인 좌절감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실상 눈 감는 형태로 외국에서도 읽히고 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다시는 제2, 제3의 군함도와 사도 광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군함도와 사도 광산도 아직까지 되돌릴 수 있는, 일본의 강제동원 그것을 밝힐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하지요? 그 조치도 아울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것을 다 보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재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오늘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는 2016년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었던 작가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소년에 대한 이야기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로 많은 지원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되어서 블랙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작가입니다. 이 말인즉슨 문화는 함부로 행정과 정치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예산에 그리고 국가유산에 꼬리표가 있을 수는 없겠지요.

청장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많은 조직과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체제 변환하는 데 연구용역 비용 얼마 드셨나요?

2000만 원 들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나라장터에서 다른 기관들 조직개편 연구용역 찾아봤더니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개편자문위 3억 원, 한국가스공사 조직개편이 3억 8000만 원 정도로 조직개편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한 영역인데 고작 2000만 원이길래 어떻게 했나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게 객관적이겠지요. 그런데 문화재청은 10명 중 8명이 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척 사유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 오히려 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거수기 노릇 하는 것 아닌가 조금 의심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조직개편하면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

진단 어떻게 했나요, 백제왕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자체와 협의하는 기구로 저희가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사업추진단 폐지했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보존관리 어떻게 하겠냐가 아니라 사업추진단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폐지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폐지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이상한데요. 원래 203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두고 1조 40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역사문화권과 그 추진단에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 추진단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크겠지요. 당연히 이 사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예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024년 주요 업무계획도 보면 이 계획은 다 사라진 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 2025년까지 사업 목표로 9450억 원을 투입하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보존정비사업추진단은 국가유산청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유산에 신라나 백제나 내지는 영남이나 호남이나에 따라 꼬리표가 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폐지 결정의 주요 배경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특히 박근혜 대통령 공약 추진사업이었습니다, 신라왕경추진단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백제왕도 복원사업의 일환인 백제왕도추진단. 그런데 하나는 존치 중이고 하나는 지워진다면 호남을 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만 지우는 것 아닌가라는, 아까 말해서 문화유산에 꼬리표를 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백제왕도추진단은 사실은 국무총리령으로 불안정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새로, 폐지하고 저희 역사문화권과에서 이 부분을 좀 정비해서 나중에 확대 개편할 그런 목적도 갖고서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확대 개편할 거라는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말씀 드리면 조직개편에 적은 그게 들어갔다는 건 사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조직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직제에 따른 저런 걸 전혀 보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고……

○강유정 위원 연구용역 내용에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제가 넘어갔는데요. 뭐뭐 하는 경향, 뭐뭐 할 예상 같이 아주 주관적인 평가들로 이루어져서 이것 연구용역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보고서에는 업무량 분석도 없어요. 제대로 된 연구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없었어요, 지금.

다시 복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 및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국이 한국의 무형유산을 자국 유산으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강화 및 문화 침탈행위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의 적극 대응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유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마련, 국가유산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기후위기 대응담 건설 관련 국가유산 훼손 우려, 독립운동가 생가 관리 강화, 산양 집단 폐사 대책 마련, 광화문 현판의 한글 교체, 만인의총역사문화관 안 내책자의 임진·정유전쟁 표현 등 정정, 전통한복의 가치 제고, 개인이 소유하고 보관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윤리경영·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소재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보스턴 미술관 소장 사리·사리구 반환 협상 문제, 환수 실적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대응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김윤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임오경 위원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원주 등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11개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웅천 청장님을 비롯한……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서면질의서를 뽑아 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접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예, 추가적으로 민형배 위원님의 서면질의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서는 10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웅천 청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6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회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강경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임종덕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정용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 김성배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최영창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김정희
사무총장 곽창용

○출석 참고인

김장순(국악인)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